

2022 **07** Vol. 385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여름 숲



여름에는
신록 가득한 산이 풍요롭다
새벽을 흔드는 청아한 새소리들
깨어난 숲은 눈부신 아침 이슬을 먹고
푸른 햇살 가득한, 맑은 계곡 물 마신다

숲은 새들을 품고
바람을 마주하며 깊은 호흡을 한다
큰 나무 작은 풀들이 함께
하늘을 향하는 숲은
산 기운이 나날이 깊어 가고
하늘의 은혜도 풍성해진다

CONTENTS

- 02 갤러리/ 김영문(브루노) 신부
여름 숲
- 03 차례
- 04 찬미가/ 김형신(이나시오) 신부
스카폴라의 성모 찬미가
- 06 가르멜 수도회의 기원
- 08 로마 총본부/ Miguel Márquez Calle 신부
전시에 데레사적 가르멜은 깨어나 기도합니다
- 10 수도회 역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66)
- 14 영성/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7)
- 18 수방에서/ 김광서(토마스) 신부
- 19 웅달샘/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주님의 기도(1)
- 20 자서전 연구/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38)
- 24 성소/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4길
- 26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김석영(요셉) 수사
하늘로 가자
- 29 가르멜뜨락/ 박계용(도미니카)
꽃신
- 30 기행문/ 윤원조(리드비나)
18일간의 숨바꼭질(12)
- 34 공동체이야기/ 서울 아기에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은총의 시간(2)
- 38 가르멜뜨락/ 김순상(베로니카)
에피메테우스와 카인과 나
- 40 가르멜뜨락/ 반숙자(벨라뎃다)
차근차근 천천히
- 42 가르멜뜨락/ 이 스킨라스티카
Camino: A Walk with Jesus(1)
- 45 가르멜뜨락/ 안병희
밥이 되어
- 46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40)
2022년 9월 영적나눔
- 48 재속회 소식
- 49 신간안내
- 50 수도회 소식
- 52 그림단상
- 표지그림**
- 가르멜의 성모자(聖母子)**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85호 (2022 7. 1)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나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관구 재속회 CARMELITE ORDER

스카폴라의 성모 찬미가

김형신 (예수의 이냐시오) 신부/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갈색빛갈 곱게뿌려 세상에 펼치시면
구원의 표지되어 우리를 이끄시네
엄마의 품속에서 아기가 꿈꾸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희망을 노래하네

어머니 긴옷자락 모두가 외면해도
우리맘 보살피는 사랑의 보금자리
호올로 두손모아 아버지께 빌으시니
한조각 갈색빛은 내영혼 물들이네

외면하지 마음소서 가르멜의 어머니여
험난한 세상에서 울부짖는 자녀들을
부끄러움 뒤로한채 당신을 마주해도
가련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으소서

물결치는 갈색자락 영혼의 방패삼아
싸우고 또싸워도 지침없이 나아가리
어머니의 약속은 승리를 지켜주니
푸른하늘 장막삼아 십자가 바라보네

당신이 건네준 보호의 스카폴라
어깨에 짊어지고 보속의 삶 이어가리
연옥영혼 구원이끌 희망의 징표이니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로써 보답하네

어머니 보호아래 천주성삼 사랑하니
봉헌의 거센열망 끝없이 피어나네
탁월한 희생으로 일치를 이루고저
성화의 은총속에 겸손되이 나아가리

가르멜의 스카폴라 천상의 조각이여
하늘길 인도하는 인류의 어머니여
지옥불 구해주실 기적의 축복선물
당신의 덕행으로 내영혼 꽃피우리

어둔밤 잠깨어나 성모님께 기도하세
위태로운 세상구원 은총통로 열어주소
영적무기 손에 쥐고 절망에서 회심으로
용기있게 달려가는 갈색의 순교자여



가르멜 수도회의 기원

보통 '가르멜회' 라고 부르는 우리 수도회의 정식 명칭은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수도회'이다. 가르멜은 이스라엘 서북부에 위치한 항구도시 하이파로부터 약 30Km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갈릴래아 지방에 속한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해발 546m의 산 이름으로 '비옥한 땅, 포도밭'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 수도회의 발상지는 카이사리아 해변 너머 지중해로 이어지는 바닷가 바라다 보이는 가르멜산 중턱에 엘리야샘이 있는 와디 아인 에스 시아 (Wadi Ayin es siah)라는 곳이다.

기원전 922년경 다윗 왕국이 이스라엘 왕국과 유다왕국으로 분할된 후 북부 이스라엘 왕국의 배교를 막기 위해서 활약한 예언자들 중 엘리야 예언자가 바알의 거짓 예언자들과 대결을 벌인 곳에서 좀더 떨어진 곳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엘리야샘은 구약시대에 엘리야 예언자가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크렛 시내에서 숨어 지내라. 물은 그 시내에서 마셔라. 그리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에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1열왕 17,3~4)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 은수 생활을 한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엘리야가 "세상에서 멀리 떠나... 동쪽으로 가서... 숨어 지내며..." 신적 관상을 목표로 은둔적, 수도자적, 예언자적 생활을 하며 그를 따르던 이들에게 전수한 이 삶을 우리 가르멜 수도회의 기원으로 삼고 있다. 예수의 데레사 성녀는 『창립사』에 이렇게 쓰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여

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온 거룩한 예언자들의 맥을 주시하십시오."(창립사29,33)

"살아계신 야훼 앞에 나는 사랑에 불타노라"(1열왕19,14 참조) 하신 엘리야의 정신을 따라 구약시대인 기원전 950여 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가 엘리야 예언자 때부터 기원후에 이르기까지 교회 전승은 이곳에 엘리야의 정신을 따르는 후계자들이 대대로 살아왔다고 한다.

12세기에 와서 팔레스티나 성지 회복을 위해 십자군 전쟁에 나선 경건한 신자들 중 일부도 성지 회복 후에 가르멜산에 남아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하고 은수자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는 수도회의 명칭도 가르멜회가 아니라 엘리야 수도회라고 불렀다.

1281년, 1294년 1324년의 가르멜 회헌에도 "가르멜산의 경건한 주민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롯한 구약과 신약의 사부들은 이 산의 고독을 깊이 사랑하고 그 곳에 있는 엘리야샘 근처에서 거룩한 보속 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이 생활은 수도자의 무리로 이어져 끊이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곳에서 "브로카르도와 그에게 순명하며 살고 있던" 라틴계 은수자들은 법적 체계의 필요성을 느껴 1206~1214년 사이에 예루살렘의 총대주교 성 알베르토의 손을 통해 정식으로 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교회 역사 안에 드러나게 되었다. 성 알베르토가 제정한 최초의 회규는 1226년 교황 호노리우스 3세로부터 수도회 회규로서 첫 인준을 받았다.

초대 가르멜 수도자들의 삶은 엘리야 예언자처럼 '크릿개울에 숨어사는' 철저한 은수자 생활이었다. 그러나 회교도들의 팔레스티나 점령으로 1230년대에 유럽으로 수도회가 이주하게 되면서 수도회는 큰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유럽으로 옮겨온 팔레스티나 사막의 은둔자들이 도시에 거주하게 되면서 유럽의 환경에 맞게 기본적인 은수생활을 고수하면서도 시대적 요청에 따른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게 되어 1247년 교황 인노첸시오 4세로부터 원초적 은수 정신과 아울러 사도직 실천을 겸비한 탁발 수도회로 최종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유럽으로 이주한 가르멜 수도회는 수도회의 정체성과 외적 변화에 따른 어려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총장이던 성시몬 스투에게 성모님께서 발현하시어 수도회를 영구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표지로 가르멜 성의(스카폴라)를 직접 건네 주시므로써 굳건한 영적 도약을 하여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크나큰 성장을 이룩해나갔다.

복음과 최초의 회규 정신에 충실하였던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는 완화된 가르멜회를 개혁하여 1562년 아빌라의 성 요셉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하였다. 성녀는 또한 개혁 가르멜 수녀들의 '관상적이며 사도적인 소명'을 함께 지니며 사목적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남자 가르멜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는데 때마침 갖 사제서품을 받은 마티아 수사(십자가의 성 요한)를 만나면서 개혁 가르멜 수도회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되었다.

개혁 이후 지난 400여 년 동안 가르멜 수도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정신에 따라 개혁, 쇄신, 적응하면서 예수의 데레사 성녀, 십자가

의 성 요한, 데레사 말가리다 성녀, 콩피엔느의 순교자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마리아 성녀, 전 세계 포교사업의 수호자 아기 예수의 데레사 성녀, 삼위일체의 엘리사벳 성녀, 로스 안데스의 예수의 데레사 성녀, 과달라하라의 순교자들, 성 요셉의 칼리노프스키 성인, 유럽의 수호자 성녀 에디트 슈타인 등 수많은 성인 성녀를 배출하여 "어머니이신 교회의 심장"으로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관상적 사도직을 드러나지 않게 구현하고 있다.

가르멜 수도회는 전 세계에 남녀 가르멜 수도원이 있는 국제 수도회로서 가르멜 영성을 세상 한 가운데서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많은 3회원들과 가르멜의 영적 가족으로 유대를 이루고 있다.

(출처: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홈페이지)



은수자들의 경당 흔적(와디 아인 에스 시아)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스텔라 마리스 성당/ 하이파이, 가르멜산)

* 로마 총본부 *

전시에 데레사적 가르멜은 깨어나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한(NOT JUST UKRAINE) 반성과 초대와 제안

미구엘 마르케스 칼레(Miguel Márquez Calle) 신부/맨발 가르멜 수도회 총장

고통스러운 반성

(기도를 하는 것은 깨어나 친교를 나누며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친구로서의 절박한 소명인 포기하지 않는 기도와 용감한 믿음, 그리고 어떤 전쟁이나 위협보다도 강한 형제들의 친교로 초대합니다. 고요한 로마에까지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있는 형제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사이렌 소리와 근처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총성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와 지원에 고마워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깨어나 여러분을 깨우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온몸을 마비시키는 전쟁의 공포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역사의 승리자이심을 강하게 확신하면서 일치되어 기도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한 용기를 일깨워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맨발 가르멜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십자군이었지만 십자군 전쟁 못지 않게 고되고 어려운 다른 전쟁을 위해 무기를 버렸던 은수자들의 후예입니다. 평생 사랑했던 분께 순종하기 위해, 그리하여 하느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일생 동안 내적 전쟁을 했던 여인의 자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몸의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온 몸이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국민, 러시아 국민, 전쟁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과 함

께 합니다.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관심 밖의 사람들과도 함께 합니다. 전쟁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닙니다. 비록 뉴스로 보도되지 않았어도 전쟁은 우크라이나 땅과 세계의 곳곳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전쟁의 희생자들(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주십시오. 우크라이나의 어떤 어머니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러시아 병사들의 신분증을 모아 러시아에 있는 그들의 어머니에게 보내서 죽은 아들의 소식을 알려줍니다. 인류애가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희생된 상대국 병사들의 어머니를 생각하는 선하고 용감한 마음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무너질 것 같은 세상을 침묵의 사랑으로 지탱합니다. 이 사랑은 승리이며 세상을 유지합니다.

전쟁은 종종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분노하지만 깨어있지는 않고, 위협을 느끼지만 일어서지 않으며, 화를 내지만 행동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는 연대하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며, 또한 편안한 곳에서 안전하게 있을 때에만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세계와 교회 그리고 우리 가르멜공동체가 처한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과 가족, 공동체와 국가에 대해 우리가 여태 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초대(“길에서 오신다. 방이라도 드리겠
니?” VIENE DE CAMINO SI LE DAIS POSADA. 1)
십자가의 성 요한) 가르멜은 환영합니다**

성녀 데레사와 십자가의 성 요한의 가르멜회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잘 개조되고 잘 정돈된 수녀원과(수도원)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합니다. 이용이 가능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많은 빈 공간들을 적절한 절차와 법에 따라 난민들이 사용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안녕에 갇혀서 집 없는 사람들의 외침에 귀를 막지 맙시다. 가능하다면 이 순간 특히 유럽 지역은 사회기관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의 공간과 수녀원의 일부를 지금 거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줍시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넉넉하고 집이나 거주지가 있는데도, 자식들과 함께 난민이 된 어머니들이 지나가는 긴 행렬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곳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아 비어있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르심에 마음을 열고 머물 곳을 청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 환대해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주신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알맞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관대함을 베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특히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의 곳곳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불의한 상황들과 전쟁과 언론매체들의 이기적인 망각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촉구합니다. 예를 들면 사헬(Sahel)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성 착취를 당하는 아이들 역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

에서 평화주의자들은 이슬람 테러리즘에 의해 침묵당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의 부족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살 당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리스모어(Lismore)의 자매 교구에서 홍수가 났습니다. 바다를 건너 유럽에 달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꿈은 침몰되어 소리 없이 사라집니다. 많은 나라에서 학대받는 여성들의 외침은 조직적으로 탄압을 당해 우리에게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콜롬비아는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위협에 처해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화이트 칼라 마피아들이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있지만, 심지어 죄 없이 십자가에 못박힌 하느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이들을 축복합니다. 대도시에서는 수많은 노인들이 방치된 채 홀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수없이 많고 많은 상황들... 비단 우크라이나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많은 현실에 침묵하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여러분의 국가나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가족처럼 한 몸이 되어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부활로 가는 우리의 길입니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역사의 수많은 십자가 아래에 계셨던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한다는 의미이며, 부활의 아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면, 행복한 부활의 여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22.4.4. 예수의 성녀 데레사 세례 기념일예
로마에서

1) 십자가의 성 요한 『시집』 XIV “성탄”의 일부분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66)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제2장: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의 맨발 가르멜

1. 근동 지방에서 남자 가르멜의 현존

6) 쿠웨이트에서의 선교

결프만과 아라비아 반도에 위치한 작은 나라인 쿠웨이트는 이라크의 침공과 그 후 이어진 전쟁으로 인해 알려지게 되었다. 이곳에 가르멜이 들어가게 된 것은 1948년으로, 가르멜 회원들과 더불어 이 나라에 가톨릭 교회가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은 이곳으로 이민 온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여러모로 도와주고 있다. 이곳을 책임진 첫 번째 고위 성직자는 성녀 데레사의 테오파노 신부로 그는 이 지역이 교황청 직속 선교지역으로 승격되면서 주교로 임명되었다. 쿠웨이트에는 아랍의 여왕이신 가르멜 성모님께 봉헌된 성지가 있다.

2. 동아시아에서의 선교

1) 인도에서의 선교

‘인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종교 가운데 하나인 힌두교 전통과 광활한 영토를 지닌 나라이다. 비록 이곳에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비율은 전 국민 대비 소수에 불과하지만, 14억이라는 인구로 인해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으며 열심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가르멜 수도회를 비롯해 많

은 수도회들은 현재 인도에서 많은 성소자를 발굴해서 수도회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을 정도이다. 인도에서 선교가 시작된 것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인도에서는 고아 지방을 기점으로 인도 전역에 선교 활동이 이루어졌다.

① 고아 지방 선교, 1621: 성 프란치스코의 비센테(Vicente de San Francisco) 신부는 호르무츠 지역의 선교를 위해 그 지역을 책임지고 있던 대주교로부터 선교에 대한 허락을 받기 위해 고아 지방으로 가야 했다. 이 지역은 포르투갈이 극동 지방에 세운 왕국의 수도였다. 당시 대주교는 그에게 호르무츠에 대한 선교를 허락했으며, 이렇게 해서 다른 회원들이 합류하게 된다. 이때 비센테 신부는 고아 지방에 가르멜 수도원 설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이를 실현한 사람은 부르고스 출신의 수태고지의 레안드로(Leandro de la Anunciación) 신부였다. 그를 비롯한 동료들은 1651년 고아 외곽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이들은 이곳을 양성소이자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전초 기지로 활용했다. 바로 이곳에서 성탄의 복자 디오니시오(Dionisio de la Natividad) 신부와 십자가의 레덴토(Redento de la Cruz) 신부가 수련을 받았다.

② 무갈 제국에 대한 선교(수랏, 봄베이, 카르와르, 디우, 타타, 델리), 1628: 이 지역에 대한 선교는 1628년 어느 포르투갈 선교 사제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가 죽자

이 선교 지역은 맨발 가르멜 회원들의 책임으로 넘어갔다. 가르멜 회원들은 이곳에서 맨발 가르멜 총장의 인도 아래 피땀을 흘리며 교회의 성장을 위해 헌신했다. 그들은 선교 열정과 더불어 데사(Deesa), 아메다바(Ahmedabab), 포나(Poona) 등지에 새로운 선교 거점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는 19세기 후반에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결국, 이들은 1854년 이 지역에 대한 선교 책임을 카푸친 프란치스코 회원들에게 넘겨주고 철수했다.

③ 가나라(Ganara) 지방에 대한 선교, 1650: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가나라 지방에 대한 선교는 고아 지방의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처음에 그곳 사람들은 선교사들을 환대했다.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회심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자 힌두교의 사제들은 그들에 맞서 대중과 지도자들을 선동했다. 결국, 선교사들은 본래 출발지였던 고아 지방으로 철수해야 했다.

④ 말라바르(Malabar) 선교, 1657(베라폴리, 콜람, 망갈로르, 마에): 인도 동부에 속하는 이 지역에 대한 복음화는 고아 지방의 가르멜 선교사들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들은 선교를 통해 많은 결실을 맺었다. 본래 이 지역은 토마 사도에 의해 오래전에 복음화되어 주민 가운데 상당수가 신자들이었지만, 비신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 지역의 교회는 로마로부터 분리된 후,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다양한 이단으로 빠졌다. 그러나 이들은 아우구스티노회 출신으로 고아의 대주교인 알레호 메네세스(Alejo Meneses)에 의해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야망에 넘친 일부 참사 회원들로 인해 이 교회는 분열되고, 그 가운데 일부만 로마 교회의 신앙에 충실하게 남았다.

그 후, 그 교회의 책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로마로 가서 교황 알렉산더 7세와 만나길 원했다. 당시 그를 동반했던 사람은 로마의 라스칼라 수도원 원장이었다. 교황은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으며, 어느 가르멜 회원을 그 교회의 사도좌 대표로 임명했다. 그와 그를 동반한 여러 가르멜 회원들은 선교를 위해 말라바르로 파견되었다. 이렇게 해서 말라바르에 대한 재복음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선교 활동은 많은 결실을 맺었다. 베라폴리, 콜람, 망갈로르, 마에 등을 아우르는 말라바르 지역 전체에 대한 선교는 19세기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선교를 위한 다양한 거점들을 획득했으며 이곳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신자들이 자라났다. 여기에 더해, 원주민 출신 사제들을 양성하기 위한 여러 신학교들도 세워졌다. 가르멜 회원들은 1878년 망갈로르에서의 선교를 예수회원들에게 위임했다.

그러나 가르멜 회원들은 이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지 않고, 베라폴리와 콜람에서 선교를 이어갔다. 이 지역에 대한 선교는 우선적으로 나바라 관구에 그리고 그 후에는 플랑드르 관구에 맡겨졌다. 가르멜 선교사들은 수도회에 입회하려는 성소자들의 양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양성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선교 지역의 확장을 위해 견고한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이들은 가르멜 재속회를 비롯해 재속 가르멜 수도회를 설립해서 가르멜 영성이 그 지역 사회 평신도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더 나아가, 총본부와 연계해서 가르멜 수녀원들을 설립함으로써 여성 성소자들이 가르멜 성소를 꽃피울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렇듯 베라폴리와 콜람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가르멜 회원들은 또 다른 지역, 즉 비자야푸람과 트리반드룸 지역에도 진출해서 선교했다.

⑤ 비자야푸람(Vijayapuram), 1930: 베라폴리에서 있었던 선교사들의 열정적인 복음화를 바탕으로 선교사들과 신자들은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해서 1886년 베라폴리 교회는 여러 교구를 통합한 관구급으로 성장했으며, 그 지역을 담당하는 주교도 대주교급으로 승급하게 되었다. 1908년 나바라 관구의 회원들은 이 지역에 대한 선교 책임을 맡게 된다. 나바라 관구는 열정적인 선교사 그룹을 파견했다. 이 그룹을 이끈 회원들로는 예수 마리아의 후안 비센테 신부, 지극히 거룩한 성사의 아우렐리아노 신부, 성녀 데레사의 자카리아스 신부가 있었다. 이들은 혼신을 다해 선교 활동에 임했으며, 시간을 두고 자신들이 맡았던 대교구를 본토 출신 성직자들에게 점차 일임했다. 이들은 이미 1930년 그 이전 지역에서 새로운 선교 지역, 즉 비자야푸람 지역을 분리한 바 있다. 이 지역 역시 나바라 관구의 회원들에게 위임되었다. 현재 이 지역은 본토 출신 성직자들에게 위임된 상태이다.

⑥ 트리반드룸(Trivandrum), 1937: 콜람의 사도좌 대리부는 1886년 9월 1일 교구로 승격했으며, 플랑드르 관구의 가르멜 회원들에게 위임되었다. 가르멜 선교사들은 열정을 다해 이 지역을 복음화했으며 많은 열매를 맺었다. 이들 역시 1930년 본토 출신 성직자들에게 이 지역을 위임했다. 콜람 지역으로부터 분할된 한 지역은 코타르(Kotar) 교구를 형성했으며, 1937년에는 트리반드룸 교구가 만들어졌다. 이 교구 역시 2000년대 초반에 본토 출신 성직자들에게 위임되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맨발 가르멜 회원들의 노력으로 인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많은 결실이 맺어졌다. 이는 선교뿐만 아니라 특히 본토 출신 성직자들의 양성에 있어서도 그러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학문 연구의 중심지들이 만들어졌으며, 점차 세월이 흐르며 푸템팔리-올와예(Puthempally-Alwaye) 대신학교가 세워졌다.

3. 인도에서 가르멜의 이식

맨발 가르멜이 인도에 이식되어 초석을 다지고 독립 관구들을 형성하게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와서의 일이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 인도는 잠재력이 큰 나라이다. 무엇보다도 사제 성소와 수도자 성소가 많으며, 여러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신학 연구의 질적인 수준도 높다. 이는 선교사들의 헌신으로 설립된 여러 교구와 그곳에 진출한 많은 수도회들의 선교적인 노력 덕분이다. 오늘날 인도 교회는 전 세계 보편 교회 내에서 점차 주역이 되어가고 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국제 모임이나 국제 학술대회가 인도에서 많이 개최되고 있다. 인도 교회는 이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1) 말라바르(Malabar) 관구

플랑드르 관구의 가르멜 회원들은 1902년 트리반드룸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 목적인 본토 출신 성소자들의 성소를 증진하기 위해서였다. 이 수도원은 1928년부터 수련 수도원으로 활용되었다. 점차 말라바르의 가르멜 회원들은 플랑드르 관구의 회원들로부터 베라폴리(Verapoly) 수도원, 아르나쿨란(Ernakulan) 수도원, 투칼라이(Thuckalay) 수도원을 인수해서 1937년에 말라바르 준관구를 세우게 된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30년 후인 1964년 말라바르는 관구로 승격되었다.

2) 만주멜(Manjummel) 관구

1874년 베라폴리에 라틴 전례에 속하는 가르멜 재속 수도회가 설립되었다. 이 수

도회의 회원들은 살아가면서 자신들의 카리스마가 맨발 가르멜과 깊이 일치하고 있다고 느꼈다. 실제로, 그들은 그 시작부터 가르멜의 영성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이에 그 수도회의 총장인 천주 모친의 치릴로 베르나르도 신부는 1950년 교황청에 맨발 가르멜과의 병합을 청했다. 이에 교황청에서는 이를 승인하되 총장 대리인 성녀 데레사의 자카리아스 신부의 임시 통치 아래 일정한 시험 기간을 거치게 했다. 시험 기간은 성공적이었으며, 결국 두 수도회는 1967년 병합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가르멜 재속 수도회가 맨발 가르멜에 흡수, 통합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곳에는 만주멜 준관구가 설립되었다. 그 후, 1964년에는 관구로 승격되었다. 이 관구는 인도네시아에 진출해서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다.

3) 카르나타카-고아(Karnataka-Goa) 관구

카르나타카 관구와 고아 관구는 1981년 합쳐져 카르나타카-고아 관구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 관구의 관할권은 카르나카타 지역과 고아 지역에 더해, 봄베이 대교구에 이른다. 이 관구의 기원은 플랑드르 관구의 선교사들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들은 1938년 고아의 마르가오(Margao)에 수도원을 설립하면서 가르멜의 씨앗을 뿌렸다. 플랑드르 관구의 회원들은 그곳뿐만 아니라 카르나타카의 망갈로르에도 여러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의 수도원들은 1958년과 1964년 만주멜 관구에 의해 통합되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카르나타카주의 2번째 도시인 마이소르에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이 지역의 성소는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1979년 총본부 직속 지부가 설립되고, 1981년에는 관구로 승격되었다. 처음에는 3개의 수도원으로 시작했던 이 지역에는 25년이 지나면서 22개의 수도원으로 증가했다. 이 관구의 회원들은 여러 본당과 선교

지를 설립해서 지역 교회의 복음화에 힘썼으며 남아프리카의 탄자니아에도 진출했다. 또한, 이들은 여러 양성 수도원을 설립하고 수준 높은 영성 센터들을 설립해서 가르멜 영성을 전파했다. 또한, 이들은 벨루르에도 선교사들을 파견했다.

4) 타밀 나두(Tamil Nadu) 관구

인도의 4번째 관구로 타밀 나두 관구를 들 수 있다. 타밀 나두는 인도를 구성하는 22개 자치주 가운데 동남부에 위치한 주로, 고유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며, 그 수도는 마드라스(Madras)이다. 이 지역은 신앙심이 깊은 곳으로, 많은 수도회, 수녀회들이 진출해서 발전한 곳이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인해, 이 지역의 가르멜 회원들은 다른 관구에 속하지 않고 독립되는 것이 합당했다. 이러한 이유로, 이곳의 가르멜은 준관구(Comisariato)로 승격했다. 타밀 나두는 케랄라 다음으로 인도에서 가르멜 회원이 가장 많다. 결국, 타밀 나두 준관구는 1992년에 관구로 승격했다. 이 관구는 1992년에 마날리카라이(Manalikkarai)에 선교사들을 파견했다. 그곳은 이미 만주멜 준관구가 1952년에 진출한 곳이기도 했다. 만주멜은 관구로 승격된 후, 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5) 남 케랄라(South Kerala) 관구

인도의 5번째이자 마지막 관구로 남 케랄라 관구를 들 수 있다. 이 관구의 기원은 총평의회 직속 관할로 있었던 베라폴리 수도원이다. 이 관구의 회원들은 라틴 전례에 속한다. 이 지역 역시 성소가 급증해서, 총평의회는 1992년에 총본부 직속 지부를 설립했으며 2002년에는 이를 관구로 승격했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7)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원

레오니의 서원

결국 1900년 7월 2일 방문회 축일에 레오니, 곧 자신을 일컬을 때 선호했던 호칭인 “가장 보잘 것 없는 이”는 장미 화관 아래 행복에 겨운 환한 표정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영원히 봉헌했다.

강론은 르바세르 신부가 했다. 그는 레오니가 1899년 6월 30일에 수도복을 착복했을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론을 했었다. (수도복 착복) 당시에, 르바세르 신부는 바오로 사도의 다음 말씀을 상기시켰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다음과 같이 바오로 사도 서간 마지막 부분을 택했다. “하느님의 은총이 제 안에서 결실을 맺었습니다.” 프랑소와 페레즈 수녀(레오니)를 격려하기 위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제가 보기에 수녀님은, 어떤 면에서 오직 하느님께서만 알고 계시겠지만, 위대한 바오로 성인과 더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은총이 제 안에서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결실은 어떤 것일까요? 바오로 성인의 경우, 은총의 결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수녀님 또한 그런 깨달음을 갈망하지 않았던가요? 단호하면서도 관대하게 결단 내리면서 갈망했던 바로 그러한 깨달음

말이에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수녀님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분처럼 사십시오!”

레오니의 외사촌 프란시스 라 넬이 가족을 대표해서 예식에 참석했다. 잔과 케링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참석할 수 없었다. 그리고 레오니가 사랑하는 외숙모 케링 부인은 2월 13일에 세상을 떠났다.

서원식 때 레오니는 사랑하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념 상분을 선물했다. 다시금 상분 사진은 날마다 레오니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던 데레사의 사진이었다. 이번에는 양손을 포개 채 벤치에 앉아 있었던 젊은 가르멜 수녀(데레사)의 사진이었던 것이다. 상분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있었다. “1897년 9월 30일에 24살의 나이로 리지의 가르멜 수녀원에서 성덕의 향기 속에 숨을 거둔 아기 예수의 데레사 수녀.”

서원하는 날, 레오니는 계약의 책으로도 알려진 서원 명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적고 서명했다.

저, 프랑소와 페레즈 마르탱은 1900년 7월 2일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방문의 성모 수녀회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기 위해 서원을 받았습니다. 저의 구세주께서 이날을 축복해주시고 서원이

언제까지나 유익이 되게 해주소서.

프랑소와 테레즈 마르탱 수녀

(서원 명부의) 같은 페이지에 레오니는 자발적이면서 강요받지 않은 채 서원을 발했으며, 어떤 감시도 받지 않고 공동체의 영적 지도자와 가족 구성원들(이 경우, 외사촌 잔 라 넬과 그녀의 남편인 프란시스 라 넬)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모든 방문회 수녀들과 마찬가지로, 레오니는 해마다 동정 마리아 봉헌 축일인 11월 21일에 서원을 갱신하곤 했다. 그러한 예식은 칸 수녀원이 1627년에 창립된 이후로 계속되어 왔다. 다시 말해 문서 차원에서 보자면, 대수도원 성당 거리에 위치한 수녀원(칸 수녀원)의 서원 명부 권수가 두툼한 분량으로 네 권이나 되었을 정도였다.

1900년 8월 4일자 편지에서 레오니는 자신의 서원에 대해 설명하면서 언니 동생 수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얼마나 멋진 날이었는지! 그 어떤 것도 내 영혼 가득 흘러 넘쳤던 완전한 고요, 천상의 평화를 흠뜨릴 순 없었어. 여태껏 정말 그렇게 행복했던 적은 절대로, 단연코 없었지 뭐야! 그렇게 천국에 있는 것 같은 날 저녁에, 난 우리가 사랑하는 데레사처럼 아름다운 화관을 벗어서 성심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앞에 놓았어. 아무런 미련도 없이 말이야. 시간이 내 행복을 앗아갈 순 없지. 왜냐하면 난 영원토록 하느님의 신부이니까.

다음 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내가 발한) 서원의 십자가로 인해 내 마음이 짓눌릴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 내

가 그렇게나 값 비싼 희생을 지불했던 그 복된 십자가로 인해서 말이야. 난 다음과 같이 혼잣말을 했지. “이번에 난 그 십자가를 간직할 거야. 그 어떤 것도 나한테서 십자가를 앗아갈 순 없어… 얼마나 기쁜인지. 이렇게 예수님께 완전히 속해 있으니 말이야!”

새로이 서원한 삶

레오니의 삶은 방문회의 다른 모든 동료 수녀들의 삶과 마찬가지로 극기, 기도, 노동의 삶이었다. 방문회의 새 멤버(레오니)는 가르멜의 언니 동생 수녀들에게 일과표를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곧 그녀는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8시 30분에 잠자리에 들었으며, 단 두 끼 식사만 했다. 한번은 아침 10시, 다른 한 번은 저녁 6시에.

레오니의 나날들은 꼭 채워져 있었다. 다시 말해 매일매일이 엄격한 일과표에 따라 조각조각 정리가 되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다. 레오니는 리지외(가르멜)의 언니 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적어 보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시간은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마치 야채나 고기 썰 듯이) 잘게 저며져 있어. 어머니이신 자연을 서서히 타오르는 불길로 사그라지게 만드는 우리의 금욕생활이 바로 그렇게 잘게 저며진 일과표에 들어가 있지.”

프랑소와 테레즈 수녀(레오니)는 다양한 과업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싶어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굼뜨고 정리정돈하는 데 지나치게 세심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동료 수녀들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만들었다.

레오니가 가장 좋아했던 소임은 바로 제

의방 소임이었다. 그녀는 제대보에 바느질로 표를 하고, 미사 드리는 데 필요한 거룩한 제구들을 준비했다. 그리고 더 보잘것없는 소임인! 촛대를 문질러 깨끗하게 닦는 일을 했다.

그녀는 가르멜의 언니 동생 수녀들에게 이런 글을 적었다. “난 경리 보조로 임명되었어. 나에게 잘 맞는 소임이지. 왜냐하면 난 수도원을 통틀어 여기저기 널려있는 것들을 정리 정돈하거든. 난 스스로를 수녀원의 작은 당나귀라고 생각해. 그리고 난 확실히 내 운명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 그렇게나 많은 희생들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계시! 내가 나 자신인 것만큼이나 하잘 것 없는, 나의 비천한 수확에 해당하는 그토록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이후에 레오니는 소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셀린에게 적어 보냈다. “지난 열흘 동안, 난 간호사였어. 정말이지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게 된다면 넌 상당히 재미있어 할 거야. 이따금씩 난 나 자신조차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야! 바로 여기에 내 비밀이 있지. 왜냐하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테레사가 간호사이거든. 난 단지 테레사의 작은 도우미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잘 해낸다면 이해할만하다는 거지. 하지만 모든 영광은 테레사의 몫이야.”

병실이나, 경리 사무실이나, 공동식당이나, 혹은 린넨 실에 있든지 간에, 레오니는 그저 보조였을 따름이다. 그러한 다양한 소임 이외에, 그녀는 수방에서 홀로 일을 계속했다. “난 오랜 시간 홀로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단다. 그러면서 그분을 행복하게 헤드리려고 끊임없이 작은 바늘로 바느질하지. 난 나의 작은 테레사에 대해

생각해. 간단히 말해, 고독 속에서 난 기쁨을 느낀단다. 이 점에서 난 정말 많이 가르멜 수도자인 거지.”

때때로 그녀는 늘 보조하는 역할만 맡았다는 사실에 유감스러워하는 유혹을 받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명민히 깨닫고 있었다. 레오니는 폴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난 여전히 공동식당에서 보잘것없는 소임을 수행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지 염두에 둔다면, 수녀원에서 내가 어떤 일이든지 맡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이지 상당한 경의를 표해야만 할 거야... 이따금씩 내가 무엇인가 그 이상의 것을 바라고 있음을 알아차릴 땐, 재빨리 하느님 뜻 안으로 들어가 버리지.”

같은 날 레오니 다음과 같이 적었다. “난 내 손으로는 그 어떤 좋은 것이라도 할 수가 없어.”

하지만 레오니는 자기의 “보잘것없음”을 좋아했다. 그녀는 자신을 작은 통나무에 비유했다. 예수님께는 그 통나무에 불 붙여 주시기를 청하고, 사랑의 성령께서는 그 불꽃을 어루만져주시기를 청하면서 말이다. 그녀는 어머니들 중에 가장 완전한 분이신 “성모 엄마”에게서 피난처를 찾았으며, 기쁘게 다음과 같이 적었다. “성모송이라는 씨앗을 심었던 것이 나한테는 행운이지 뭐야!”

다른 이들 돌보기

어린 시절의 암울했던 기억과 “비참한 마음” 상태에서 받게 되었던 온갖 은총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레오니 안에는 어떤 시련도 견뎌낼 수 있는 아량이 생겨났다. 그녀는 공동체 각 회원들에게 다음

과 같이 말했다. “수녀님, 당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제게 청하세요. 기꺼이 당신을 돕겠습니다.”

수도생활 초기의 어려움을 기억에 떠올리며, 레오니는 특히 나이 어린 수녀들에게 마음을 쓰면서 친절을 베풀었다. 어느 날 저녁에, 레오니는 어떤 청원자의 두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알아차렸다. 성무일도를 바치고 나서, 레오니는 그 청원자의 수방 문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껴안아주었다. (그로 인해) 그 젊은 청원자는 크게 위로받았던 것이다.

레오니는 걱정스러워하거나 우울해하는 이들 모두를 위로해주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다. 자기 가족을 걱정하고 있었던 한 수녀에게,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확신하며 말해주었다. “수녀님은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의 작은 테레사가 수녀님 가족 모두를 돌보아주고 있으니까요. 테레사는 그분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보살펴주고 있거든요. 걱정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내가 수녀님 가족 모두를 테레사에게 위탁했으니까 말이에요.”

전임 원장 수녀는 폴린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프랑소와 페레즈 수녀(레오니)는 저의 노년기를 수많은 다정한 배려심으로 채우고 있어요. 그녀는 틀림없이 시간을 지켜 도착해서는 절 휠체어에 태워 가대소와 공동체 모임에 데려다준답니다.”

서원 전날 밤,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결심했었다. “나의 하느님, 당신께서 바라시는 것을 제 안에서 행하세요. 저로 하여금 선하고 자비로워지게 하소서. 심지어 한도를 넘어서까지 (선하고 자비로워지게 해 주소서). 그렇게 되면 제가 당신의 새로운 계명을 실천하는 데 있어 테레사의 모범을 따를 수 있게 되겠지요. 제 안에서,

그리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이렇게나 힘겨운 위험 속에서 저를 위해 행하소서. 왜냐하면 제가 대단히 약하다는 사실을 두려워할 만한 온갖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것처럼 약하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전 너무 자주 배신당했어요. 나의 예수님, 당신께 대한 저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나도 작으며 아주 보잘것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레오니는 가르멜 수녀원에서의 식량 제한에 관해 끊임없이 걱정했다. 그래서 레오니의 언니 동생 수녀들은 그녀를 안심시켜야만 했다. 그렇게 되어 마리가 다음과 같이 글을 써 보냈던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관해 걱정하지 마렴. 우리에게겐 충분한 빵이 있다고 전에 너한테 말하지 않았니.”

당연하게도, 세 명의 가르멜 언니 동생 수녀들은 레오니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다. 레오니는 언니 동생의 생일과 축일을 정확히 기억했다. 하지만 이따금씩 수많은 날짜들로 인해 조금 혼동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러한 기념일들을 통해 실제 자신의 기념일들을 떠올리곤 했다!

레오니는 몇몇 동료의 날카로운 말들을 침묵 속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였다. 알랑송에서 한때 자신을 학대했던 하녀 루이즈 마라이스를 용서했던 것처럼 말이다. 르장드르 부인, 곧 아내이며 어머니가 되었던 루이즈는 1923년 12월에 세상을 떠났다. 레오니는 “전 저를 괴롭혔던 이를 마음을 다해 용서합니다. 그리고 전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투병하시는 동안에 어머니를 그렇게나 잘 돌보아드렸던 루이즈에게 감사할 뿐이에요.” 라고 말했었다.

(다음 호에 계속)

『수방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상정할 수조차 없는 초자연적인 하느님 나라를 왜 작디작은 누룩에 비유하셨을까요?

우리는 단지 반죽 덩어리입니다. 아직 먹을 수 있는 음식인 빵 이전의 상태인 것이지요. 반죽은 다양한 크기, 모양, 맛의 빵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누룩과 만나서 부풀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맛난 빵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아주아주 작아 눈으로도 보이지 않는 누룩의 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이 작은 누룩균은 영적 변화를 가져오는 하느님의 사랑, 말씀의 현존, 성령의 역동성 등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새로운 창조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하느님 말씀께서 우리 안에 육화되시어 반죽 덩어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발효시키시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 상태인 맛있는 빵으로 변화됩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누룩과 하나가 되면 내 가정, 우리 공동체, 교회 그리고 사회 전체에서 하느님 말씀의 발효를 드러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누룩의 비유 안에는 가장 작은 것의 거룩한 힘이 가장 완전하고 최상의 상태인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작고 하찮은 것 안에 담겨있는 하느님 현존의 신비를 알아보는 맘고 겸손한 영혼이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나 자신부터 먼저 작은 마리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 김광서(삼위일체의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응달샘 *

주님의 기도(1)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신부/ 인천 수도원

주님의 기도 안에는 하느님 찬미와 우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 얼마나 완전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는(즉, 성부 성자 성령) 그에게 가서 거처하리라”(요한 14, 23)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도 처음에는 모르셨다가 나중에 하느님께서 가까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완덕 28장 참조) “임금님 계신 곳이 궁전이라면 하느님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완덕 28.2)라고 하시면서, “영혼의 자그마한 하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도 안에서 아주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느님을 너무나 경외한 나머지 감히 이름도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칭할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덕분에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하느님의 참 자녀의 지위(地位)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참여로써 하느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다 하느님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느님 아버지의 참 자녀가 된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찬미와 감사의 흠숭을 드리며, 있는 힘을 다해 하느님과 이웃을 마음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가 성덕(聖德)에로 나아가는 그만큼 하느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기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온통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나라, 곧 하늘나라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성모님과 성인 성녀들과 함께 얼마나 즐거운 나라일까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은 우리 모두가 구원되는 것(1디모 2, 4)인데, 이 구원의 대가를 하느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사랑의 무게와 십자가의 무게는 같습니다.(완덕 32장)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가장 큰 십자가를 안겨주셨듯이,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사랑의 정도에 따라 크고 작은 십자가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에 이르는 고통을 더 많이 받을수록, 하늘나라에서는 더 높이 올라가서 하느님이 위대하심을 더 잘 알게 되고, 하느님을 더 찬미하고,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리게 됩니다(예수의 데레사 성녀 자서전 37, 2 참조).

(다음 호에 계속)

* 자서전 연구 *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 (38)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2. “저처럼 천박하고 약한, 더구나 겁쟁이인 여자에 대한 착한 사람들의 반대”

이는 메달의 뒷면과 같은 것으로, 성녀는 신비적인 은총에 반대되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성녀는 이미 이 점을 앞선 여러 장을 통해 언급한 바 있다.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거부는 이어지는 장에서 한계에 이르고 있다. 이는 경멸하는 명백한 태도에 대한 부과와 함께 드러난다.

이는 우리에게 성녀 데레사의 신비적인 사실이 일어나는 심리적, 종교적, 사회적 환경에 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중요한 주제이다. 이 환경은 지극히 적대적인 것으로, 심지어 발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는 성녀가 이야기의 마지막에 친히 요약한 곳에서 잘 성찰한 점이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영적인 길에서 경험이 많은 지도자를 만나지 못한 영혼이 겪는 큰 고통을 아셨으면 해서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그와 같이 많은 은총을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판단력을 잃게 할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었으며, 때로 저는 주님께 눈을 들어 올리는 것 이외에는 도무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처지에 있곤 했습니다”(18절).

이는 역설적인 대립이다. 정면에 있으면서 동시에 우호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 반목하는 친구 그룹에 의해 인도된다. 모두는 지극히 하느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거룩하다. 그러나 동시에 평범하다. 그들은 성녀를 조롱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동시에 성녀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을 했다. 즉, 그들은 단순히 성녀가 체험한 것은 “악마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성녀의 벗들은 성녀와 함께 우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성녀를 경계해야 한다는 말을 퍼트렸다.

이런 충격전의 중심에 성녀 데레사의 고해사제가 있었다. 그는 젊은 발타사르 알바레스 신부로, 성덕과 학식을 갖춘 예수회원이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확신하지 못했고 걱정했다. 그에 대해 성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아주 신중하고 겸손하였는데 그 큰 겸손이 제게는 많은 괴로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학식이 있는 분이셨으며 자신에게 신뢰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을 이런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14절). “극심한 공포에 짓눌려 있던 저는 불완전하게나마 모든 면에서 그분께 순명했습니다”(15절).

알바레스 신부는 위험을 무릅쓰고 개입해서 성녀로 하여금 고해성사 밖에서 다른 조연자들에게 자신의 문제를 맡겨보도록 조연했다. 이는 악마의 장난감인 현시를 보는 수녀를 둘러싼 소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당시 성녀는 자신을 반대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비 체험들을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식별하기 위한 근거와 증거들을 제시한 가운데 이를 신중하게 나눴다: “사람들이 제게 그건 악마이며

착각이라고 말할 때 (이런 일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를 비롯해서 그 밖의 다른 이유들을 들어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그분들이 제가 지금껏 함께 이야기한 제가 아는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면서..."(12-13절). 여기서 성녀의 신비 체험과 관련된 근거와 불합리성을 둘러싸고 옥신각신한 일에 관해 단순한 결산을 해보기로 하자.

a. 반대자들이 제시한 근거들

성녀의 벗들인 5인조가 제시한 근거들은 성녀 데레사가 겪은 신비 현상들에 대한 거부를 외견상 신학적인 근거에 두고 있었다. 아빌라 시에 있는 여인들 중에 성녀보다 더 완전한 여인들이 있는데, 성녀가 그들에 비해 지닌 불평등과 불리함이 그것이다. 그럼에도, 그 여인들에게는 성녀가 받은 신비적인 은총들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왜냐하면, 이 고장에 아주 거룩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타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분들을 저와 같은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기에 그분들은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12절). 한편에는 성녀가 자신에게 허위로 질문하는 주제들과 관련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기 위해 사용한 자유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그들이 겸손의 부족함과 악령의 징후를 억누르기 위해 사용한 자유가 있었다. "그분들은 제게 몇 가지 사안들에 관해 질문했고, 저는 그에 대해 별다른 경계심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그분들은 제가 당신들을 가르치려 들고 학자인 체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17절).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퍼진 이 이야기는 특히 악마론에 대한 편견으로, 신학이 아니라 미신에 속한다. 이러한 편견들은 조

명주의자들의 환경과 종교재판소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생겨난 현시자들의 경우처럼 충격을 주었다.

b. 데레사가 제기한 근거들

성녀가 식별 기준으로 삼은 근거들은 명확하고 심사숙고한 것이자 무게감 있는 것이다. 성녀는 비록 사람들이 그런 근거들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일생을 통해 그런 근거들을 견지했다. 반면, 신비적인 은총에 직면해서 그리고 자신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추궁에 직면해서, 그에 대한 성녀의 반응들은 모호하지만, 일종의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 성녀는 매번 새로운 신비 체험에 직면해서 놀라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자신의 신비 체험에 대해 판단한 사람들의 입장에 직면해서, 즉 하느님이 자신을 거짓이나 사기꾼에 빠지게 한 것은 자신의 죄와 자신이 살아온 '천박한 삶'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판단에 직면해서 그들의 견해에 대해 의심했다. 천박한 삶과 성녀가 주장하는 신비적인 은총들 사이의 불균형이란 주제를 성녀의 의식 안에 주입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성녀가 신뢰하던 조언자들이었다.

c. 오늘날 독자들의 평가

신자이건 비신자이건, 문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건 신학자이건, 통상 사람들은 현시라는 현상에 대해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성녀 데레사의 경우, 정확히 말해 『자서전』의 이 부분의 경우, 빛과 그림자가 강하게 대조되어 드러난다. 신심 깊은 독자는 빛에 관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반면,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림자가 관심의 대상일 것이다. 데레사가 경험한 신비적인 사실(현시)은 일반적인 흐름에 반대된다. 즉, 그것은 심리적 차원, 종교적 차원, 사

회적 차원에서 볼 때 일반적인 흐름에서 벗어난다.

심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성녀 데레사는 자신이 경험하는 현상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태도를 견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현상들은 마침내 성녀에게 쇄도해 들어왔다. 이러한 성녀의 태도는 의식적인 차원에서나 무의식적인 차원에서 낯선 것으로, 성녀는 자신에게 신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압도당하곤 했다. 결국, 성녀는 그런 신비 현상을 촉발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수용했을 뿐이다. 또한, 성녀가 보인 저항은 단순한 억압이 아니다. 성녀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미리 알지 못했으며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녀 데레사는 자신이 겪는 신비 현상에 반대되는 압력을 겪어야 했다. 성녀 주위에는 성녀가 겪는 것을 집요하게 반대하는 공식적인 사람들(그들은 평판이 좋고 권위 있는 사람들로 여겨졌다)로 구성된 그룹이 있었다. 그들은 성녀가 겪고 있는 신비 현상을 참된 신심에 반대되는 편에 두었으며, 심지어 그 현상을 주저 없이 악마적인 범주로 분류했다. 성녀가 체험한 신비 현상들은 이런 장벽을 넘어서는 가운데 길을 열어야 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볼 때, 성녀는 사기치는 현시자들의 주변부에 있는 그룹에 어울린다고 느끼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고 자신을 고무하지도 않았다. 그런 현시자들은 웃음거리와 조롱거리의 대상이거나(성녀는 이와 관련해서 ‘비웃음을 당하다’, ‘놀림거리가 되다’, ‘시시한 여자들’) 종교재판소가 예의주시하는 인물이었다(이에 대해 성녀는 자 33, 5에 가서야 좀 더 자세히 언급했다).

그러므로, 성녀가 경험한 신비 현상에 대한 복합적인 반대 분위기는 훗날 심리적, 종교적, 사회적 수준을 넘어서 그 현상

의 진정성에 대한 보장으로 바뀌게 된다. 성녀는 이 점에 대해 잘 알게 될 것이다. 성녀는 자신의 신비적인 삶에 있어서 어두웠던 이 시절을 결코 잊지 않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성녀는 어느 영적 보고서에서 이를 종합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기한 바 있다: “그 수녀는 6년 이상 수많은 시험을 거치며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시험을 거치는 동안, 현시와 정지 상태 또는 황홀경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보고 53, 5).

3. 28장에 대한 메모

1) 『영혼의 성』에 있는 『자서전』의 이중성: 지성적 현시와 상상적 현시라는 이중적인 주제(27장과 28장)는 『영혼의 성』 6궁방에서 그 부분과 병행해서 드러나고 있다. 각각의 장은 해당 주제를 위해 할애되고 있다. 성녀는 6궁 8장에서 하느님이 어떻게 영혼에게 ‘지성적 현시’를 통해 자신을 통교하는지 설명했다. 반면, 6궁 9장에서는 하느님이 어떻게 영혼에게 ‘상상적 현시’를 통해 자신을 통교하는지 설명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러한 현시들을 식별하기 위한 근거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6궁 9, 14-16). 그리고 사도 바오로의 현시에 대한 보고를 설명했다: “성 바오로가 땅바닥에 쓰러졌을 때, 하늘이 요란하고 센 바람이 일어났듯이…”(6궁 9, 10).

2) 반대하는 검열관들의 일화: 성녀는 그로부터 10년 후, 종교재판소의 어느 재판관에게 제출한 영적 보고서를 통해 응축해서 제시한 바 있다. 거기서 성녀는 우선 알칸타라의 베드로 신부에 대해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그분은 맨발 프란치스코회에 속하는 거룩하신 분으로 그 수녀로 하여금 그것이 선한 영에 기인한다는 사실

을 잘 이해하게 해 주셨습니다”(보고 53, 4). 이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 수녀는 6년 이상 수많은 시험을 거치며 - 장문의 글을 써야 했고 그에 대해서는 장차 말씀 드리겠습니다 - 많은 눈물을 흘리고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시험을 거치는 동안 현시와 정지 상태 또는 황홀경을 수없이 체험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 수녀는 주님께서 자신을 다른 길로 인도하시길 바라며 많은 기도를 드리고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중에 있지 않을 때 그 수녀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영혼에 보다 유익이 되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수녀는 많은 차이를 보았습니다. 예전에 그 수녀가 많이도 대면했고 이해하려 했던 그 어떤 허영이나 유혹 그리고 교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에게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고해신부들과 여러분들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중죄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후회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녀가 보기에 그 신부님들이 자신에 대해 비웃으며 그런 것들을 주재님은 여인네들의 일로 치부하며 늘 그런 얘기를 듣는 데 넌더리를 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보고 53, 5-6).

제29장:

“주님께서 메꾸신 큰 은혜들”

큰 시험과 고통

화살의 은총

성녀가 자신의 신비적인 삶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감에 있어 이정표들을 고정하기 위해 활용한 기초적인 연대 자료들은 다음과 같다:

- 그리스도에 대한 반복적인 현시 체험은 “2년 반” 전부터 이어져 온다: 1560-1562.
- 바람과 사랑에 대한 격렬한 충동이 “3년 전부터” 지속되고 있다: 1561-1564(참조. 자 33, 4).
- 이 5년 동안 화살의 은총이 일어났다. 즉, 천사가 성녀에게 화살을 쏘아 그 심장을 관통한 은총을 말한다. 이는 1560년에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 번 일어났다.
- 3년 시기의 마지막인 1560년, 성녀는 현재의 이 본문을 생생하게 글로 옮겼다. 당시 성녀는 만 50살이었다.

본문에 소개된 이야기는 바로 앞 장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다. 성녀는 ‘현시’라는 주제, 그리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계속 언급하고 있다. 이제 이들은 더 무리한 요구를 하는 가운데 성녀에게 고통을 더하고 있다. 그들은 성녀로 하여금 현시를 볼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도록 강제했다(자 29, 1-7).

본 장의 두 번째 부분은 애정적인 것에 대한 가시적인 체험의 걸음을 가리키고 있다. 그것은 하느님을 향한 바람과 사랑이 억제할 수 없이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제 안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큰 사랑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가 제게 이 사랑을 놓아 주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자 29, 7-12).

마지막으로, 본 장의 이야기는 성녀 데레사의 신비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감동적인 일화들 가운데 하나를 소개하고 있다. 성녀는 이를 ‘화살의 은총’으로 불렀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런 일은 종종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크나큰 법열을 베풀길 원하시는 때에는…”(자 29, 13-14).

(다음 호에 계속)



가르멜로(路) 74-54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우리는 생각보다 별 것 없는 것들을 모아놓아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고 익숙하고 초라한 것을 새롭게 볼 때면 '이런 느낌은 참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자주 보기엔 모르고 있던 것이 새롭게 보이기도 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는 순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좋지 않게 보았던 것이 다시 보니 좋게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습 또한 이와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초라한 모습, 별거 없는 듯한 모습 뒤에 내가 보지 못했던 모습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 감춰진 것을 알아가면서 많은 놀라움을 느낄 수 있죠.

베드로 사도는 열정이 많이 앞서는 사도였죠. 그래서 먼저 나서서 자신있게 이런 저런 이야기나 확신을 하지만,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장담한 것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일은 이미 잘 알려진 일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베드로 사도의 부족한 모습은 성령감람 이후에 완전히 뒤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장서서 복음을 선포하고, 목숨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단점이 열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전에는 단점이었던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초라하고 부족한 모습을 무조건 부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부족한 점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채워지면, 이는 우리의 장점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선 지금 내 모습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다가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하느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하죠.

예수님께서서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내 단점을 없애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단점을 지닌 지금,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면서 말이죠.

부족하고 초라한 나여도 조금은 뻔뻔하게 예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 소문의 :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하늘로 가자

Caminemos para el cielo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하늘로 가자
가르멜의 수녀들아

십자가 열싸안고
우리의 길 우리의 빛
모든 위로의 샘이신
예수님 따라가자
가르멜의 수녀들아

세 가지 굳은 맹서 그 약속을
눈동자 보다 소중히 지켜만 가면
근심 걱정 슬픔이 천이고
만이어도 이를 벗어 나리라
가르멜의 수녀들아

높고 높은 지식일손
순명함의 서원(誓願)은
어짐이 없을수록 이그러짐 없느니
하느님이 그대들을
미리 감싸주시기를
가르멜의 수녀들아

Caminemos para el cielo,
monjas del Carmelo.

Abracemos bien la Cruz
y sigamos a Jesús,
que es nuestro camino y lua,
lleno de todo consuelo,
monjas del Carmelo.

Si guardáis más que los ojos
la profesión de tres votos,
libraros de mil enojos,
de tristeza y desconsuelo,
monjas del Carmelo.

Al voto de la obediencia,
aunque es de muy alta ciencia,
jamás se le hace ofensa
sino cuando hay resistencia,
De ésta os libre Dios del cielo,
monjas del Carmelo.

순결의 서원을랑
 조심 조심 지키면서
 천주 아님 무엇도 바라지 말라
 이승의 즈믄 일엔 결눈질 말고
 그 님의 품속에만 몸을 잠그라
 가르멜의 수녀들아

El voto de castidad
 con gran cuidado guardad.
 A solo Dios desead,
 y en El mismo os encerrad,
 sin mirar cosa del suelo,
 monjas del Carmelo.

청빈이란 서원을
 조출하게 지키면
 보화는 철철 넘고
 천당문이 열린다
 가르멜의 수녀들아

El que llaman de pobreza,
 si se guarda con pureza,
 está lleno de riqueza
 y abre las puertas del sielo,
 monjas del Carmelo.

이러히 함으로써 우리,
 원수들을 쳐이기고
 마침내 우리는 쉬리로다
 하늘과 땅을 내신 그님을 모시고
 가르멜의 수녀들아

Y si bien así lo hacemos,
 los contrarios venceremos
 y a la fin descansaremos
 con el que hizo tierra y cielo,
 monjas del Carmelo.

< 해설 >

“가르멜(수도원)은 우리가 지상에서 누리는 천국입니다.
 스스로의 기쁨을 포기하고 오로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사람만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녀 데레사가 쓴 「완덕의 길」 어딘가에 있는 구절인데, 필자는 오래전부터 이 구절을 외우고 있어서, 그동안 수사님들이나 수녀님들의 서원을 축하하는 글(카드나 편지)을 쓸 때 자주 인용하였다.

성녀께서 성 요셉 수녀원을 필두로 하여 17개의 개혁 가르멜 수녀원을 창립하여 함께 살면서 오로지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침묵과 고행과 극기와 희생의 수도생활을 시작한 수녀들을 격려하며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때그때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어떤 수녀 개인이나 공동체에 간절한 마음이 담긴 말씀으로 훈시하시는 모습이 이 시의 여러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다.

특별히 이 시에서는 우리 교회의 모든 수도자들이 장상과 수도 공동체 앞에서 발하는 3대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신학적으로는 순명, 청빈, 정결의 이 세 가지 서원을 두고 복음 삼덕이라고도 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느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인 신앙, 희망, 사랑을 두고 향주덕(向主德) 또는 대신덕(對神德)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수덕(修德) 신학에서는 수도자들이 지키는 복음 삼덕은 이것(향주덕 또는 대신덕)을 좀 더 잘 지키게 도와주고 키워준다고 본다.

이 시의 셋째 연에서 ‘높고 높은 지식일손/ 순명함의 서원은/ 어김이 없을수록 이그러짐 없느니’ 라고 하였는데, 하느님께 대한 믿음으로 자기의 이성(理性)을 복종시킴으로 순명서원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그런데 성녀가 노래한 이 시에서는 망덕과 애덕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나타난다.

넷째 연에서 ‘순결의 서원을랑/ 조심 조심 지키면서/ 천주 아닌 무엇도 바라지 말라’ 고 하였는데, 하느님께 대한 사랑으로 지키는 정결 서원은 갈라지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해서 하느님 아닌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올곧은 마음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애덕을 완성한다고 가르친다.

그리고 다섯째 연에서 ‘청빈이란 서원을/ 조출하게 지키면/ 보화는 철철 넘고’ 라고 하였는데, 하느님께 대한 희망으로 지키는 청빈은 편리와 부요함만 추구하는 세속 정신인 소유욕을 버리고 천국에 대한 희망으로 결핍과 가난 안에서 만족하고 살면서 망덕을 도와주며 자라게 한다.

성녀가 쓴 대부분의 시처럼 여기서도 특별한 상징이나 비유가 없어서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윗 시의 넷째 연에 ‘즈믄’이라는 말은 숫자 ‘천(千)’의 옛말로써 무수히 많다는 뜻이다.*

* 가르멜뜨락 *

꽃신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테레사 공동체

선물을 받았다. 예스러운 문양이 그려진 달력이었다. 달력은 어느 사이 궁중 예복이 들어있는 함으로 변했다. 청치마와 홍치마, 어느 것을 고를까 망설이는 내게 두 벌 모두 주어지는 행운이라니! 황홀한 금박 스란치마였다. 넓은 초원에 조출한 전각 두 채가 자리하고 연륙의 잔디밭 한가운데 서안(書案)이 놓여 있었다. 빈집의 적막함이 오히려 평화로운 별궁, 내가 앉을 계안(机案)이 놓인 자리가 옆 전각과 경계선이라 했다. 그쪽 뜰엔 어린 아이 뒤섞인 놀이판이 요란법석이어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다. 울도 담도 없는데 높다란 솟을대문이 있었다. 열쇠 하나를 얻었지만 열쇠 구멍이 닿지 않아 깨금발로 애를 쓰다 잠에서 깨었다.

새벽녘에 잠이 들어 꿈을 꾸는 것이다. 쉽사리 잊히는 여느 꿈과는 달리 너무나 생생하고 선명한 색감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다. 선물로 받은 예복, 책상, 열쇠는 무슨 의미일까 곰곰이 생각에 잠긴다. 전생에 생각시 시절이라도 있었는지 자꾸만 궁에 가고 싶다. 상서로운 길몽을 꾸는 것이라 여기려니 요란한 소음과 함께 지붕 위로 사다리차가 보인다. 대문 밖 뿌리 깊은 향나무를 바람이 불면 화재의 위험과 벽에 금이 간다고 자르러 온 모양이다. 자옥한 먼지에 문을 닫고 조바심 친다. 나뭇등걸 조금은 남기라고 달려 나가니 그루터기만 하얗게 남아있다. 아직 다친 발이 시원찮아선지 휘청 넘어지며

신발은 벗겨지고 난분만 깨트렸다.

저만치 내동댕이쳐진 신발을 챙겨 드는 순간 섬광처럼 스치는 한 생각, 바로 꽃신이다. 맞아! 나에게서는 비단 가죽으로 만든 당혜 운혜도 아니지만, 이것만은 신고 간다고 떼를 쓰던 꽃신이 있었다. 지난밤 꿈속에 새 옷을 마련해 주셨지만 신발은 아니 보였다. 이는 애지중지 소중한 여기는 하찮은 욕심을 버리라는 가르침을 깨닫는다. 나는 곧잘 별스럽지 않은 것을 소유하지 못해 안달이다. 꽃신 안에 소복이 담겨있는 욕심이 울타리 넘어 자꾸만 바깥세상으로 발길을 돌리게 한다. 씹살한 마음으로 싹둑 잘린 향나무 그루터기를 쓰다듬는다. 희미한 나이트에 남겨진 향기가 길게 머문다. 썩어 없어질 헛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그윽한 향기에 취하라신다. 보이지 않는 대문을 꼭꼭 걸어 잠근 후 주신 예복으로 단장하고 영혼의 성 지밀한 궁방에 고요히 안주하라하신다.

목향이 땀도는 베어진 자리에 꽃신을 얇전히 벗어 놓고 비로소 낮은 책상 앞에 앉는다.*



* 순례기 *

18일간의 숨바꼭질(12)

윤원조(예수마리아의 리드비나)/ 고성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우리는 오늘 베스테르보르크를 가야 한다. ‘거위와 함께 있는 소녀’ 분수대를 지나 상가 골목을 몇 번 돌아 들어가니 성녀가 자주 들렀다는 ‘크로란츠 제과점’이 나온다. 우리는 책을 통해 이 제과점이 아직도 그곳에 있다는 반가운 정보에 무조건 순례 1순위에 넣었다.

인적이 드문 소도시의 아침, 제과점 부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자서전에서 성녀는 이 크로란츠 제과점은 이 고장에서 가장 맛있는 케이크로 유명하다고 썼는데 이날도 진열장에는 케이크의 종류가 많았다. 전통을 지닌 이곳 케이크의 모양은 장식 없이 간결했는데 오히려 고급스럽게 느껴졌다.

신부님은 제과점 과자 한 봉지를 사서 회원들에게 나누어주며 다니셨다. 촉박한 일정 때문에 제과점 안 탁자에 앉아 볼 겨를도 없이, 우리는 서둘러 제과점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거센 시대를 비껴나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다행스러운 느낌은 바람처럼 그곳에 머무르다 스쳐 지나간 성

녀에 대한 아쉬운 기억과 이상한 대비를 이루었다.

여대생이 없던 시절, 명석한 철학도로서의 에디트 슈타인에 대한 기억을 품고 있는 이 오래된 제과점은 화창한 하루를 시작하는 이 도시에서 시간의 강물로 흘러가고 있다. 우리도 함께 그 강물 위를 타고 흘러가고 있다.

책에 보면 ‘막스 셸러’는 카페 같은 곳에서 종종 강의를 했다고 한다. 이런 제과점 어느 한편 구석진 곳에서도 그들만의 총명한 대화가 고목의 수많은 나뭇잎들처럼 서로서로 흔들리며 즐겁지 않았을까? 그 당시의 독일의 대학이 가지고 있는 학구적인 느낌은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이 전달해주는 힘에서 느낄 수 있다. 대학 축전 서곡이 헌정된 대학이 성녀의 고향이자 대학 생활 시작을 했던 브레슬라우 대학이라니, 상아탑의 신성하다고도 할 수 있는 ‘진리’ 추구의 한 가운데 성녀는 서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서둘러 방향을 돌려 성녀의 하숙 집으로 향했다. 오래된 도시의 차도는 무척 좁고 인도를 주차장처럼 쓰고 있다. 아침 햇살이 골목의 반을 그림자로 채우고 있는 저 멀리 노란색 4층 건물이 아침 햇살에 환하게 빛나고 있다. 건물은 지금도 그때처럼 하숙집 용도로 쓰이는 모양새다.

건물의 유일한 출입문인 오른쪽 흰색 격자문에는, 찢기고 색 바랜



갖가지 상표 스티커가 빈틈없이 붙어 있고 그 출입문 위 흰색 돌판 위에

‘에디트 슈타인

철학자

1913-1916’

이라는 작은 스케치북 크기만 한 명패가 붙어 있다. 철학자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뒤를 이어 후설 교수의 조수 생활을 했던 독일 실존주의 철학의 대가 ‘하이데거’를 떠올렸다. 그가 성녀가 정리해 놓은 원본 그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했다는 사실을, 성녀에 대해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게다가 총장 시절에는 대학을 구하기 위해서였다는 이유로 나치 부역을 하였다는 것, 그리고 임종의 순간까지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뜻밖의 사실로 접하게 되었었다.

이 시대 최고 철학자 중 한 명인 하이데거, 그리고 현상학의 대가인 후설, 후설과 하이데거와 동시대를 살았던 철학자로서, 그들의 한가운데에 에디트 슈타인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 안에서 성녀는 ‘현상학’을 통해 하느님께 나아갈 길을 발견한, ‘진리의 길’을 걸어간 철학자이자 구도자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인증사진을 찍듯 서둘러 건물을 배경으로 단체 사진을 찍었다.

“나와 에디트가 함께 하숙하고 있던 그 작은 아파트 방에는 침실과 서재, 그리고 부엌이 있었고 점심은 밖에서 먹었지만 아침과 저녁 식사는 하숙방에서 해 먹었어요. 에디트는 내게 뒤지지 않을 만큼 요리도 청소도 잘 했습니다. 에디트는 내가 평생 동안 만난 비범한 여성들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재원(才媛)이었습니다. 에디트는 진리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리가 분명해질 때까지 철저하게 하나의 문제와 맞붙어 나가는 창조적인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로제 블룸-구

트만)

아침에 가이드 형제님으로부터 전해 들은 일정은, 괴팅겐에서 성녀의 하숙집을 마지막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괴팅겐 시내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다음 드디어 베스테르보르크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갑자기 베스테르보르크를 향하는 것 이외 모든 일정은 다 취소되었다.

“지금 출발을 한다 해도 4시간은 넘게 걸리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계산상으로 4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뿐, 시간차가 얼마나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아야 알겠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서둘렀던 일정의 이 긴장은 어젯밤부터 이어진 것이었다. 다음날 빨리 일어나야 했기 때문에 이른 잠을 재촉했던 것이다. 괴팅겐에서의 일정마저도 수많은 노벨수상자를 배출했다는 괴팅겐 대학이나, 당대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밤새 모여 차를 마시고 토론을 했을 후설의 집도 포기를 하고 서둘러 가는 길. 미사도 포기하고 점심식사 예약도 취소하고 떠나는 길, 우리 순례 여정에 최강수를 둔 날이다. 하늘은 한없이 높고 투명하고 대기는 신선하다.

버스로 한 시간을 달린 후 샌드위치로 간단히 점심을 때우기 위해 휴게소에 내렸다. 아직은 독일 땅, 여기서부터 쉼 없이 달려 네덜란드 북동부에 있다는 한 작은 마을을 찾아가는 길이다. 네덜란드로 향하는 이 경유지를 통과하는 동양인 관광객들은 거의 없어서인지 현지인들은 우리가 지나가면 쳐다보았다.

베스테르보르크는 에디트 슈타인 성녀가 사나흘 정도 머물다 바로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신, 중간 수용소 정도로 인식되지만 사실 네덜란드 북동부에 위치한 이곳의 시

작은 ‘난민캠프’였다. 1933년 독일 나치 정권이 수립된 후 유대인들은 유럽을 떠나 전 세계로 그들의 생활 터전을 옮겨갔다. 이때보다는 뒤늦게이긴 하지만 성녀의 바로 위 언니인 에르나는 미국으로, 또 큰 언니인 엘자는 남미 이주로 나치의 폭정을 피해 떠났었다.

이곳은 독일 국경을 넘어 네덜란드로 유입된 난민을 수용한 곳이었고, 1939년 10월, 최초로 22명의 난민들이 거처를 잡은 곳이다.

하지만 1940년 7월, 1년도 안되어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한 뒤로는 이곳 난민캠프는 원래의 용도와는 정반대로 유대인 수감자들이 동부의 집단 수용소나 학살 수용소로 이감되기 전에 머무르는 임시 수용소로 이용되기에 이른다. 유대인들이 나치의 폭정을 피해 집단 거주했던 곳이, 2차 대전의 거센 바람과 함께 유대인 수용소가 돼버린 것이다.

1942년 7월부터 1944년 9월까지, 이곳에서 다른 수용소로의 이동이 있었다하니 성녀께서는 그 초기에 이곳에 사나흘 머무르신 것이 된다.

“자, 갑시다, 언니. 우리들의 백성을 위해서……”

성녀는 로자 언니와 함께 1942년 8월 2일 밤 에히트 수녀원에서 아메르스포르트로 이송된 후 8월 4일 밤 베스테르보르크 집단 수용소로 이송되었다.

당시 베스테르보르크 상황은 진흙투성이인 황량한 평지를 둘러싸고 있는 철조망과 반 평방 킬로미터의 부지 안에 빈틈을 두지 않고 뻣뻣이 들어선 목조 바라크들, 무시무시한 감시탑들, 그리고 가끔씩 기관총 소리가 연속으로 울리는, 극도로 혼잡한 공포와 절망 속에 마치 생지옥과 같은 광경이었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는 베스테르보르크에 도착한 날(8월 4일) 에히트 수녀원에 편지

를 보낸다.

“경애하올 원장 수녀님, 수녀님들에게. 오늘 밤 우리들은 중계소인 아메르스포르트를 출발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중략) 필요한 경우가 생길지 모르니 우리들의 신분증명서, 가계표와 빵의 배급표를 보내주실 수 없을까요? 우리들은 아직까지는 마음의 동요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중략) 예수 성심 안에서, 당신의 베네딕타 수녀 올림”

1942년 8월 6일, 바라크 36에서 보낸 편지가 마지막이 된다.

“경애하올 원장 수녀님.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털양말과 담요 두 장입니다. 그리고 로자를 위해서 따뜻한 속옷과 세탁한 의류, 우리 둘에게는 수건이 필요합니다. 로자는 칫솔도 없는데 십자가와 목주조차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내게는 최근에 나온 성무일도서를 보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지금까지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의 신분증명서, 가계표와 빵 배급표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에히트의 수녀님들 모두에게 안부 잘 전해 주시기를.

베네딕타 수녀 올림.”

베스테르보르크에 수용되었다 살아남은 브롬 베르그 부인은 이렇게 회상했다.

“에디트 슈타인과 다른 수녀들과의 차이는 그녀에게서 넘치도록 풍기는 정밀함, 그 고요함,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슬픔 속에 침잠해 있긴 했지만 공포로 떠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당면한 고난이 너무나도 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나에겐 그녀의 미소조차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거의 말하는 일이 없

었는데 가끔 말로는 다할 수 없는 슬픔으로 언니 로자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라크에 앉아있던 그 모습을 상기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없는 피에타(Pieta)가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수용된 사람들 중에서도 에디트 슈타인이 지니고 있던 그 침착함과 그 고요함은 두드러졌습니다. 수용소의 비참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새로 그곳에 도착한 사람들은 극도의 공포로 떨고 있었는데 에디트 슈타인은 그러한 부인들에게 다가가 마치 천사처럼 그들을 위로하고 돕고 다독이며 격려해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경우 아이 어머니들은 거의 실성해서 아이들을 방치한 채 며칠씩 비탄의 눈물만 흘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에디트 슈타인은 곧바로 아이들을 씻겨주고 머리를 빗겨주었으며 식사를 돕고 몸주체 등을 해주면서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그 수용소의 극소수 생존자 중 한 명인 율리우스 마르칸의 증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나는 모든 일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걱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것은 하느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요”

성녀는 베스테르보르크에 수용된 이를 면담 온 한 사람과의 짧은 만남 안에서 그녀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로한다.

‘수자와 카오리’를 비롯 성녀를 연구한 많은 사람들은 에디트 영성의 핵심은 헌신Hingabe 이라고 한다.

“우리들의 의지를 포기하는 것을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성 가능한 것으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헌신Hingabe 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성성聖性的의 척도

입니다. 또한 그것은 동시에 우리들의 힘에 의하지 않는 하느님께서 자유로이 주시는 신비적 일치에 이르기 위한 전제이기도 합니다.” (에디트 슈타인, ‘세계와 사람’)

8월 7일 새벽 아우슈비츠로의 이송 명령이 있기 몇 시간 전, 에히트 수녀들의 부탁으로 일용품을 전달하러 방문한 두 남자에게 성녀는 지금까지도 가르멜의 수녀복을 입고 있을 수 있어 기쁘다는 말을 하였다.

8월 7일, 오전에 에디트와 로자를 실은 강제 이송 화물차는 네덜란드에서 아우슈비츠를 향해 출발했다.

힘든 순례길이 될 줄 알면서도 고집해서 찾아가는 길이다.

한 사람의 진가는 평범한 일상 안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오히려 그의 하루하루는 누구보다도 평범하게 영위된다. 다만 그는 그 일상을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갈 뿐이다. 그러나 극한 고통의 순간이 닥치면, 일상성의 평범함에 묻혀 있던 그의 전 인격의 품위와 힘, 모든 것이 드러난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내 삶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에디트 슈타인이 보여준 품위와 그 인격이 만들어낸 정밀한 고요, 평화가 ‘가르멜 영성의 꽃’으로 피어나는 모습, 그 향기에 그녀 곁에 있었던 많은 이들은 깊이 감동하였다.

에디트 슈타인 성녀의 하느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탁, 전 생애에 걸쳐 드러난 헌신 그리고 전 인격이 드러난 곳, 예수님과 일치되어 하느님의 아드님의 모습으로 인류 구원의 과업에 기꺼이 동참한 성녀의 마지막 모습을 그리워하며 지금 우리는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 공동체 이야기 *

은총의 시간(2)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시편 103,2)



-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

원조 공동체 서울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는 긴 세월 동안 영적으로 성장했고 회원들 간의 사랑도 더 깊어졌습니다. 그중 우리 공동체 선배님들의 후배 사랑은 고요하지만 깊은 호수 같습니다.

함께 나누어 먹고도 남아 집으로 가져갈 만큼의 음식들을 매 월모임마다 준비해오시며, 구역모임을 마치고는 앞다투어 식사대접을 하고자 하시는 모습, 공동체의 행사 때마다 쌈짓돈을 건네시기도 하고, 연피정마다 진심 어린 격려의 말씀과 함께

참사들에게 공진단을 한 아름 안겨 주시는 모습에서 후배 사랑이 느껴집니다.

또, 야외 행사에서는 손수 만드신 떡이며 간식을 가져오셔서 아침을 거른 후배들을 챙기시고, 갓 입회한 후배에게 당신이 쓰시던 기도문 꾸러미를 통째로 넘겨주시기도 합니다. 미사보를 못 챙긴 수련자에게는 쓰고 계시던 미사보를 슬며시 얹어 주시며, 수련 시절 쓰신 묵상 노트를 수련자에게 건네주시는 모습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피양성자 만남에서의 장기자랑 연습차 초대하시어 소박하고 정결한 성가정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귀한 찬으로 대접해주신 선배님, 연피정 중 미술링 셰프 못지않은

실력으로 전 회원에게 파스타를 직접 만들어 준 형제님, 가르멜산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새하얀 모시 한복 단아한 자태로 혜화역 주변 거리를 빛나게 하시던 선배님, 인천 수도권 서약 피정 때 씻을 물을 데워주셨던 선배님. 많은 선배님께서 당신만의 방식으로 후배들을 향한 애정을 듬뿍 전해주십니다.

선배님들의 모습은 차분하고 조용하여 보는 것만으로도 깊은 감화를 줍니다. 아름답고 천사 같이 빛나시던 종신서약식에서의 모습, 가르멜은 천국의 한 모퉁이임을 알게 해주시던 금경축의 기억, 서약의 길 참 곱게 걸어오신 은경축 선배님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주시는 양성자님들과 구역장님들, 하느님께서 부르신 참사회 직무에 응답하여 공동체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 맡기며 언제나 고요한 미소를 지녔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우리 참사님들...

실천하는 사랑으로 모범을 보이시며 공동체에 헌신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은 가르멜의 삶에 매료되게 합니다. 후배들도 선배님들께 받은 사랑을 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들과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는 최고의 사랑 공동체입니다. 가르멜 정체성 안에서 선배님과 후배들이 서로 사랑으로 이끌어주고 상호지켜주는 서울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는 늘 감사의 기도가 넘칩니다.

- 저희는 당신 빛으로 빛을 보나이다 -

원조팀이다 보니 많은 단독회원(55명과 행불 9명)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는 우리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우리 공동체에는 선종하시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호스피스 병실에서 만난 선배님께서 담

백한 표정과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뵈옵는 날을 기쁘게 기다린다.” 하시던 모습은 오래도록 여운이 남습니다.

장례 예절에 참여할 때마다 화관을 쓰신 선배님들은 참 곱고 편안하셨습니다.

회원이 돌아가시면 전 회원이 협조 사제를 모시고 입관과 선종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고 희망을 두셨던 선배님께서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선종 회원 곁에서 살베 레지나를 부르는 모습은 세상의 가족을 넘어선 영의 가족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로 떠날 때도 가족처럼 내 곁에서 함께 하겠구나’ 생각이 들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주례 사제께서, 장례에 참여한 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선배님들의 삶은 믿음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사랑 나눔에도 적극적이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벗이 될 수 있는 희망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리게 되고 닮고 싶은 열망도 커져 더 충실히 살 것을 다짐합니다.

- 완덕의 길, 거룩한 영양소 -

우리 공동체 참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될 때 <온유의 해>, <지혜의 해>, <기쁨의 해> 등 공동체 지향 주제를 정하고 주제에 맞는 성경 구절을 매월 소식지 지면에 안내해 더 깊이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피정을 앞둔 준비 기간에 매일 영적 일기를 쓰고 그것을 연피정 날 봉헌하고, 매일 묵주기도 50단씩을 바치면서 연피정 동안 베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합니다.

매년 성경 필사 전시를 하고 필사를 마친 회원들에게는 상품을 마련하여 선물합니다.

- 친교 생활 -



종신자 재교육(의정부 가르멜 여자 수도원)

종신자 재교육 때 마니또 나눔은 서로를 가까워지게 하고, 조별 주제에 의한 그림 그리기와 전시 등으로 영적 진보를 격려합니다.

또한 매달 생태적 회개 실천 사항을 소식지에 올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배달 음식 자제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등을 제시하며 주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하고 가난의 삶을 실천하게 합니다.

팬데믹 상황에는 월모임, 구역모임, 양성교육을 비대면으로 하였지만 전 회원이 성실하게 동참하였고 피양성자의 과제물은 우편으로 전달하여 파악하였습니다. SNS를 통하여 공유하고 싶은 글이나 '가르멜 수도원 성 요셉 채널', '영성강좌', '가르멜 365묵상 캘린더', '열린 마당' 등을 안내해 주고 영상물을 자주 보내주어 자칫 해이해질 수도 있는 시기에 가르멜 영성의 기본을 충실히 다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니며 나아가도록 믿음 안으로 이끌어주는 참사회에 순명하며 전 회원들은 영성적 풍요로움을 삶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야외 행사, 공동체의 날, 피양성자 전체 모임, 종신서약식 등 행사 때는 함께 모여 친교를 나눕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된 친교생활은 그립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종식되어 친교의 장을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추억을 떠올립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재속회관 뒷편 약수터까지 삼삼오오 산책을 나섰던 소소한 일상도 추억이 되었습니다. 공동체의 날에 수도원을 방문하여 수사님들, 수녀님들과 장기자랑을 하고 게임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었지요. 성지를 방문하여 야외 미사를 봉헌하면서 순교자들의 전구를 청하던 은총의 시간도 가졌었고요. 연피정 중엔 뽕힌 구역이 신부님과 함께 식사하는 행운을 갖는데 정성스럽게 준비해 와서 즐거운 식사를 하였었지요. 연피정 마지막 날 전 회원이 재속회관 주변의 백사실계곡과 운동주 문학관으로 동네 한 바퀴를 하면서 피정을 마무리한 추억도 있습니다. 구역변경 전 달에는 야외에서 친교 나눔을 하며 구역원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였습니다.

수해 입은 회원들을 멀리까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미사를 봉헌하였었고요

피양성자 전체 만남 때 인제 자작나무숲을 찾아 자연을 즐기고 내린천에서 막국수와 감자전으로 맛있는 식사를 했던 행복한 나들이도 떠오릅니다. 서울 숲에서의 게임과 장기자랑, 남산 산책 등 야외에서의 활동은 서로를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은경축과 연피정의 마지막 날에는 종신서약자와 그 가족들을 초대해 축하 파티를 엽니다. 단독회원들과 함께 장기자랑을 하고 식사를 하며 가르멜 가족의 끈끈한 우정을 확인하지요. 구역별 장기자랑에는 시간을 쪼개 연습하여 다양한 공연을 펼칩니다. 비밀리에 준비한 참사회 복고댄스에 폭발적 박수를 보내며 기뻐했었고요. 즐기도 즐을씨고 아기자기한지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한데 모여 사는 것!

공동체 여러 축제의 장에서 우리는 한마음이 되어 행복했고 사랑 또한 깊어갔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며 가르멜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재속 맨발 가르멜회의 가족으로 좋은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갈 것입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하늘 아래 5월
좁은 사잇길로
님을 만나러
첫걸음을 떼었어요

문을 열면
나무 냄새. 바람 냄새. 풀 냄새

그 속에 낮은 방석
올곧이 앉아서 찬미가를.

쏟아지는 꿀잠 속에서
꿈결같이님을 만나
달콤한 사랑 고백에
나를 잊었어요

- 어느 수련자의 시



종신서약 축하식



공동체의 날 미사(천진암 가르멜 여자 수도원)

* 가르멜 트랙 *

에피메테우스와 카인과 나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오랜 예전의 일이다. 살살살 초보 시절이었다. 아침 6시 30분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우회전하는 나를 건너편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나오던 봉고 트럭 아저씨가 내 앞쪽을 살짝 받았다. 물론 속도감은 없었다. 일종의 찰과상 정도로 가벼운 접촉사고이다.

이 아저씨, 나보다 아주 한참 후에 차 밖으로 나오면서 “아줌마, 그렇게 운전하면 어떻게 해요.” 하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이 아닌가? 새벽임에도 순식간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어디선가 몰려 왔다. 참으로 황당한 순간이었다. 너무 늦게 차에서 나오니 출근길의 나도 화가 났다.

“아저씨, 목소리 크면 이기는 건 줄 아세요? 경찰 부르면 되잖아요? 경찰을.” 이 아저씨 그 순간 180도 바뀌는 표정이라니. “아저씨 딸도 취직시험 보러 간다면 서로 운이 없어서 이리된 거니까 면허증 보여주시고 빨리빨리 해결하고 늦지 않게 가셔야 시험을 붙을 것 아니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나. 뒤에 물어보니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그때는 전혀 내가 잘못된 것을 몰랐다는 점이다. 아저씨한테서 술 냄새가 나던 일도 나중에 생각이 났다. 그 아저씨는 음주 운전으로 많이 당황하셨던 듯. 내 첫 번째 영광의 딱지를 떼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똑바로 보지 못하면서 남의 허물은 그리도 잘 보는지? 내가 잘못했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큰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을 했다. 그런데 건너편에서 좌회전 신호 받으면서 잘 도는

상대방 차의 방해물이 된 것이다. 내 탓으로 취직시험 보러 가는 귀한 딸을 태우고 가던 부녀의 가슴에 멍을 남겨 놓은 것이다. 어찌하다가 상대편 면허증을 내놓으라고, 큰소리치는 배려 없는 웅색한 마음을 가졌을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미안하고 미안하다)

오늘은 설거지하다가 쏟아 놓은 식판을 떨어뜨려 시퍼렇게 멍들고 부풀어 오른 조리원의 발등을 보면서 시린 가슴을 어루만져야 했다.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랑하는 아내의 위생복까지 깨끗이 빨아서 가방에 차곡차곡 넣어 주곤 했다는 먼저 보내버린 아줌마의 짝궁 씨가 생각이 나는 건 아직 내가 따뜻한 영혼을 지녔다는 이야기일까? 위안을 해 본다.

그리스 신화는 그냥 정체되어 있었던 다른 지역의 신화와는 달리 역사와 함께 발전을 거듭하며 오늘날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는 수많은 역사가와 문학가들이 큰 역할을 하였다. 고대 사회에서의 신화는 그들의 믿음과 숭배의 대상이 되기까지도 하여 그들의 생활을 완전히 지배했다. 이것이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지금은 모두가 하나의 허구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인다.

그리스 신화에서의 제우스는 하늘·기후의 신이며 천둥·번개·비·바람·벼락을 보내는 신으로 신들을 이끌고 다녔다. 이 시절,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 두 형

제가 살고 있었다. 형인 프로메테우스는 신들의 왕인 제우스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불을 주어 문화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고 그 별로 높은 카우카소스 산꼭대기 바위에 쇠사슬로 묶여서 독수리에게 의지가 들어있는 간을 매일 뜯어 먹히었는데 그다음 날이면 다시 말끔히 아물어 있었다. 그것을 다시 독수리가 쪼아 먹으므로 그는 날마다 똑같은 고통을 당해야 했다. 그는 부당하게 받는 고통을 참고, 압박에 대항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신이 된다.

그러나 동생인 에피메테우스는 아내인 판도라(그리스 신화에서 맨 처음 만들어진 여자)가 가진 상자를 형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열고 열어 버린다. 이 상자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었을까?

불행하게도 온갖 나쁜 것이란 나쁜 것, 병 + 가난 + 두려움 + 근심 + 슬픔 + 노여움 + 질투 + 미움 + 원망 + 거짓 등등 고통과 악의 씨앗을 인류에게 나누어주게 되고 깊은 후회와 반성 속에서 살게 된다. 반전으로, 뒤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그 상자에는 악이 아니라 축복들이 들어있었는데, 인간은 스스로의 호기심 때문에 그것을 열게 되어 인류를 위해 보존될 수도 있었을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한다.

이 신화를 보며 우리는 구약성경의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창세 4장)**를 떠올리게 된다.

형 카인은 사람이 낳은 최초의 사람으로 농부였고 동생 아벨은 양치기였다. 우리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큰아들이다. 최초의 농부인 카인은 수확물을 하느님께 바쳤다. 그리고 최초의 목동인 동생 아벨은 정성껏 마련한 질 좋은 가축으로

골라서 하느님에게 바쳤다. 이에 하느님은 아벨의 제물을 더 좋아했다. 질투를 느낀 카인은 아벨을 몰래 피어내어 돌로 쳐서 죽임으로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 그러자 하느님은 그 별로 카인을 영원한 유랑 생활에 몰아넣고 목숨만은 살려주기로 했다. 자비하신 하느님은 **'카인의 표식'** 이라는 표를 주시니 이는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는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의 표시이다

에레미아 31,3 〓 나는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다. 그리하여 너에게 한결같이 자애를 베풀었다. 〓

이사야 40,11 〓 그분께서는 목자처럼 당신의 가축들을 먹이시고 새끼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

I 요한 4,15 〓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

시편 139,1-2 〓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살펴보시어 아십니다. 제가 앉거나 서거나 당신께서는 아시고 제 생각을 멀리서도 알아채십니다. 〓

그리스 신화에서 동생인 **에피메테우스**와 창세기 최초의 살인자인 **카인**은 충고를 안 받아들이고 인내를 못한 탓으로 악의 주인공이 되고 만다.

선입견 없이, 많고도 많았던 助言(조언)을 사랑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도 180도 바뀐 세상을 살고 있을까. 반추해본다.*

* 가르멜 트랙 *

차근차근 천천히

반숙자(성 요셉의 벨라뎃다) /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새벽마다 나를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집에서 3분 거리, 조그만 텃밭입니다. 어떤 날 늦잠을 자는 날이면 베갯머리까지 달려와 어서 일어나라고 소근거립니다. 눈을 비비며 들어서는 소나무밭에는 까치 식구들이 먼저 와 있고 동네 냇이들도 나와서 모래에 텃굴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헬스장이고 기도처고 내면의 향아리에 기쁨이 채워지는 곳입니다.

흙을 만지는 시간 생명을 창조합니다. 갖가지 여름 채소를 심고 고추며 가지, 토마토도 빼놓지 않았지요. 연둣빛 새싹이 나올거릴 때면 깨끗한 기쁨이 샘솟아요. 사람들 속에서는 주눅이 드는데 여기만 오면 모두가 내 편인 것 같아 말 못 하는 작물들과 끈끈한 연대감을 느낍니다. 세상에 생명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요. 이 생명들을 품고 있는 대지에 경배합니다.

여기만 오면 종종거리던 걸음새가 느긋해집니다. 자주 들여다보던 스마트 폰도 뒷전이고 앉은뱅이 의자에 몸을 부리면 세상에 내가 제일 행복합니다. 애초에 농부였던 체질이라 그런지 나는 흙과 같이 있을 때 제일 편안합니다. 여기서의 차근차근 천천히가 온몸으로 스며듭니다. 누가 식물은 예지와 영성을 지닌 녹색 현자라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시시각각 제 속도로 자라는 채소들이 많은 이야기를 전해 줍니다.

오랜 가뭄으로 세 포기 심은 호박과 오이 잎이 오글오글 합니다. 잎을 뒤집어보니 진딧물이 영겼어요. 얼마나 가려울까, 금세 내 몸이 근저러워집니다. 미안해, 미

안해, 사과를 하고 농약방으로 달려갔지요, 얼마나 급하던지 집에서 쓰는 스프레이 병에 약을 타서 한 잎 한 잎 들춰가며 뿌려주고 나니 잎들이 방글방글 웃어요.

얼마 전에 “인생 후르츠”라는 다큐멘터리를 영화로 담아놓은 것을 보았어요. 일본의 90세 츠바타 슈이치 할아버지와 87세의 츠바타 히데코 할머니는 오늘도 집 앞마당을 가꿉니다. 앞마당에서 나온 야채와 과일로 오늘의 요리를 하는 할머니와 일하는 틈틈 귀여운 그림을 그리는 할아버지, 노부부의 일상이 잔잔한 여운을 남겼어요.

할아버지는 유능한 건축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대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건축에 대한 생태학적 시선과 신념이 정부의 산업화 도시화하는 도시개발 방식과 맞지 않아 혼자 저항하며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고독하지만 고귀했어요. 노동과 휴식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삶의 방식이 근사해서 눈길을 거둘 수 없었어요. 그리고 더 인상 깊었던 것은 중간중간에 자막으로 뜨는 나레이션입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떨어진다.
낙엽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진다.
땅이 비옥해지면 열매가 열린다.
차근차근 천천히
인생 후르츠

이분들은 자연의 모든 순환을 하나의 원

으로 보고 그 섭리 안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바람이 불어 낙엽이 떨어지는 현상 하나만 보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요. 그런데 낙엽이 떨어지면 땅이 비옥해지고 열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열매에는 내일의 시간에 자라날 씨가 들어있으니 계속 이어지는 거지요. 나는 이분들의 자연관 안에 숨어 계시는 하느님 현존을 느껴요. 그러니 서두르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차근차근 천천히 살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의 헬스장은 밭 임자가 집은 짓지 않고 소나무를 심어 정원수로 가꾸면서 빈 곳을 일구어 거름 주고 비닐을 씌워 놓고 나보고 거기서 놀라고 해요. 농막을 떠나서 유배지에 사는 것 같은 내게 삼십 평대지는 안성맞춤 에덴동산입니다. 여기서 농약이나 제초제는 절대 안 쓴다고 경고해 놓았지요. 자연농법이니 풀을 열심히 뽑아요. 땀이 비 오듯 해요. 가짓수로도 열다섯 가지나 골고루 심고 물을 줘요. 이 노동이 헬스장 운동입니다. 그냥 운동뿐 아니라 생명과 교감하는 순간들이 생기를 불어넣어요. 인생 후르츠의 할머니는 가을이면 상자를 여러 개 준비해 놓고 집에서 수확한 과일들을 상자에 담아 이웃과 나눠요. 나도 상추를 수확해서 앞집 옆집 나누는 재미가 얼마나 뿌듯한지요.

다음은 기도처예요. 나는 채소를 가꾸며 “누군가를 길러내는 사랑,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랑,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사랑”을 꿈꿔요. 그 대상이 사람이기를 바라지만 아직 부족함으로 우선 눈앞에 자라는 식물들을 향해 그런 사랑을 연습해요. 나중에는 가까운 사람부터 먼 사람에게 천천히 차근차근하게 다가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채소들은 내가 바라보아주는 만큼 저도 나를 바라보아요. 어떤 때는 몇 곱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니 대지의 품에서 겸손이 무엇인

지 알아가는 중이에요. 어쩌면 하느님께서도 내가 너풀너풀 자라는 채소들을 사랑으로 바라보듯이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그윽히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내가 기뻐하면 하느님도 기뻐하시고 내가 아파하면 하느님 맘도 아프실 거예요. 그러니 기쁘게 살아야지요.

이 조그만 밭은 내 일상을 감사로 충만하게 합니다. 어떤 날은 경전으로, 어떤 날은 생명의 신비로, 어떤 날은 삶의 방식으로 기쁨을 가득 채워줍니다. 차근차근 천천히, 오래 살수록 인생은 더 아름다워진다는 노부부의 말을 생각하며 그런 삶을 꾸려가리라 다짐합니다.*



* 가르멜 프락 *

Camino: A Walk with Jesus (1)

이 스콜라스티카 / 남가주 성 요셉 공동체



미국에서, 아니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사는 LA. 각기 다른 환경, 다른 언어, 다른 음식,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모인 곳. 백인, 흑인, 황인, 북미, 남미, 아시아,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 완전히 다른 사람들. 수많은 사건과 사고, 기쁨과 즐거움, 눈물과 한탄, 자기애와 이웃사랑이 공존하는 삶의 현장. 거기에는 같은 곳을 향해서 가는 이들끼리 모인 수많은 서로 다른 단체들과 모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그런 공동체들 가운데 “한분이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하나”라고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들의 공동체도 있다. ‘하느님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고요한 4월 이른 아침 한자리에 모였다. 거대한 무리의 ‘하느님의 사람들’이 로스엔젤레스 다운타운을

‘Camino: A Walk with Jesus’라는 이름으로 걷고 있었다.

사순절과 성 요셉 성월을 보내고 있던 3월 중순의 어느 날 이메일을 하나 받았다. LA 대교구가 지내고 있는 희년의 일환으로 순례를 기획하고 있으니, 참가 희망자는 접수를 하라는 것이었다. 4월 2일 토요일, 오전 8시 미사로 시작하여 11마일(18킬로 정도)을 걷는 여정이었다. ‘내가 걸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잠깐 나를 스쳤다. 그러나 반면 순례를 해야만 하는 수많은 이유들이 내게 다가왔다. LA 교구민의 한 사람으로 희년을 보내고 있고, 사순절을 지내고 있으며, 3월이라 성 요셉 성인에게 30일 기도를 봉헌하는 중이었으며,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수많은 이유들이 나를 순례에 참가시키기에 충분하였

다. 어느 사이에 걱정은 사라지고, 당연히 결어야 된다는 의무감 같은 것이 자리를 하고 있었다. 또한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내 삶의 자리에서 까미노 순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설렘이 마음 안에 자리하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을 했다. 본당에서 제의방 봉사를 하고 있는 나는 제의방의 다른 모든 이들도 함께 하자고 했고, 본당 신부님의 조언으로 10여 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캘리포니아는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수사들에 의하여 남단의 샌디에고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쪽의 샌프란시스코 소라노까지 21개의 미션으로 이루어진 가톨릭을 바탕으로 형성된 주이다. 많은 도시들의 이름이 성인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며,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도 바로 “천사들의 도시”라는 의미이다. 이렇게 21개의 미션을 연결하는 600마일 (965킬로)의 길을 El Camino Real (“The Royal Road”, “The King’s Highway”)이라 부른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길이니 당연히 귀족의 길이고 왕의 길인 것이다.

1769년 샌디에고 미션을 시작으로 1823년 샌프란시스코 소라노 미션까지 21개의 미션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많은 이들 중심에는 프란치스코 수사였던 주니페로 세라(St. Junipero Serra)가 있었다.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미션을 만들었으며, 생애를 마쳤다. 그의 유해는 캘리포니아 북부의 카멜에 있는 성 찰스 보로메오 미션에 안치되어있다. 그는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의해 워싱턴에 있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 바실리카에서 성인품에 오르셨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가톨릭 초등학교 학생들은 3학년 또는 4학년에 캘리포니아의 미션에 관해 공부를 한다. 21개의 미션의 역사와 의미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미션으로 현장학습을 가고, 미션의 모형을 만들어 교실에 전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21개의 미션을 방문해 보도록 적극 권장한다. 두 명의 우리 아이들도 가톨릭 학교를 다녔기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생이던 그 시기에 거의 모든 미션을 방문했었다.

천사들의 도시인 로스엔젤레스(Los Angeles)의 탄생인 샌 가브리엘 San Gabriel 미션은 1771년 9월 8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탄생 축일에 설립된 21개 미션 중에서 4번째 미션이다. LA 대교구는 탄생 250주년을 알리는 2021년 9월 8일부터 2022년 9월 8일까지 1년을 희년으로 보내고 있다.

2020년 7월 11일 새벽 4시 30분, 샌 가브리엘 미션에 화재가 났었다. 전 세계의 모든 도시가 팬데믹으로 움츠려 들고 있었던 때였다. 아침 일찍 나온 뉴스에 가톨릭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LA의 모든 시민들이 신경을 쏟고 있었다. 특별히 오래된 미션들에는 건물은 물론이거니와 성상, 성화 등 교회 역사의 귀중한 재산들이 있다. 그 중요성을 알기에 주위의 6개 도시에서 모여든 80명이 넘는 소방대원들, 15대의 일반 소방차, 5대의 긴 사다리가 딸린 소방차, 3대의 앰블런스와 헬기가 동원되었다. 소방대원들이 미션의 모든 문마다 엄청나게 물을 퍼부으면서 화재는 2시간 만에 진압되었다. 화재는 방화로 판명되었고, 2년이 다가오는 지금도 미션은 복구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 와중에 교구 탄생 250주년을 맞이한 것이다. 2년의 팬데믹을 거친 후 조금 자유로워진 4월, 교구는 LA 교구의 탄생지인 샌 가브리엘 미션에서 시작하여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천사의 모후 주교좌 성당까지 11마일의 도보 순례를 결정한 것이

다. 순례 일정은 오전 8시에 미션에서 교구장님의 미사로 시작하여 중간에 3개의 성당을 거치고, 고등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주교좌 성당에 도착하여 마침 기도로 마무리하는 행사였다. 순례자들은 차를 미션의 주차장에 주차한 후 순례가 끝나면, 주교좌 성당에서 미션까지 셔틀이 운행되기로 준비가 되어있었다. 점심과 물, 선블록 크림 등이 제공된다고 했다.

나는 가르멜의 자매님과 함께 움직이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 성당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아침 6시 45분에 본당에 차를 세워놓고 본당의 필리핀 형제님이 우리를 미션으로 데려다 주었다. 그분은 건강 때문에 참석은 못하지만 봉사를 해주는 것이었다. 감사와 설렘, 기대와 흥분, 여러 가지 지향들을 가지고 미션에 도착했다. 온 마음으로 하루를 봉헌하기로 했으니,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모두 봉헌한다는 마음으로 우리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 미사를 드리려고 앞으로 가는 도중 우리 재속회의 부부를 만났다. 그분들이 다니는 한국 성당에서는 버스를 대절하여 40명이 참석하였다고 했다. 우리는 함께 제일 앞자리에 앉아 미사를 봉헌했다. 미션 성당은 8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는데 성당은 가득 찼다. 주교님은 강론을 통하여, 행사를 담당한 부서에 감사했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믿음 안에 모인 우리는 교구 설립 250주년의 희년을 보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를 지향하고, 모든 이들이 함께 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별히 어지러운 세상 안에서 걸어서 순례를 한다는 것은 가톨릭의 오랜 전통을 이어가는 것이니, 희년을 기념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다른 모든 지향들을 모아 예수님과 함께 걷자고 하였다. 그리고 대주교님도 모든 순례의 시작부터 끝까지 신자들과 함께 했다.



미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본당 신자들과 만나고 함께 기념 사진을 한 장 찍고, 순례의 여정에 들어섰다.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준비한 교구의 담당 부서도 참가한 순례자들도 모두 기쁨으로 놀라는 날이었다. 믿음으로, 믿음 안에 하나로 모인 이들이었다. 11마일이라는 거리와는 상관없이 함께 한다는 마음만으로 참석한 이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하여.

300개 이상의 본당에서 2,000명이 넘는 신자들이 한마음으로, 즐겁게 그러나 시끄럽지 않게 길을 걷는 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던졌다. 특별히 이 순례길은 도심을 관통하는 길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긴 행렬이 궁금하여 지나가던 행인들은 멈추어서 한동안 긴 행렬을 바라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무엇을 하나요?” 하고 묻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나도 그분을 아는데요”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순례자들과 행인들은 이런 대화들을 주고받곤 하였다. 끝이 안 보이는 행렬, 중간중간 솟아있는 깃발. 그 속을 걷고 있는 이들은 하나같이 평온하고, 미소가 있으며, 행복해 보이는 이들이었다.

(다음 호에 계속)

* 가르멜 트랙 *

밥이 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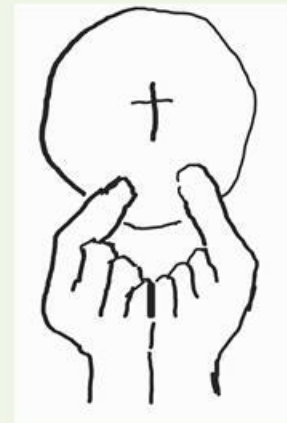
안병희 / 서울 성 요셉 공동체

벼알이 튼실히 자라
 고슬 고슬 하얀 밥
 콩과 팥 쑥쑥 잘 자라
 고소한 콩밥 팥밥 되었네

미나리가 자라고
 시금치 고추가 자라서
 상큼한 나물 반찬
 구수한 된장찌개 되었다

먹거리가 되어
 나에게 찾아온
 곡식과 푸성귀들
 잘 차려진 먹거리가 되었을 때
 잘 살았다 칭찬한다

나에게 생명의 빵으로
 다가오신 남이시여
 나도 당신의 맛난 밥으로 나아가리다
 너와 나의 밥이 되기 위하여
 오늘을 살게 하소서



2022년 9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제40장 해설: 사랑과 경외심: 이 여정을 위한 삶의 확실함

40장에서 성녀는 계속해서 「주님의 기도」의 마지막 두 청원에 대해 설명했다. 우리는 이 청원 기도와 더불어 하느님께 유혹과 악에 대항할 수 있는 도움을 청하게 된다.

성녀는 40-41장에서 이에 대한 처방을 제시했다. 특히 ‘사랑’과 ‘경외심’을, 그중에 우선 40장에서 ‘사랑’이란 처방이 무엇인지 다뤘다.

1. 두 개의 견고한 성: 사랑과 경외심

성녀가 열망한 영적 여정에 대한 확실함은 사랑과 경외심이라는 두 개의 근본적인 자세로부터 나온다.

이미 앞서 성녀는 ‘겸손’과 ‘이탈’이라는 두 개의 복음적인 덕들을 묶어서 제시한 바 있다. “겸손과 이탈은 언제나 같이 다니는 자매 같아서 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완.바 10, 3). 이제 성녀는 본장에서 사랑과 경외심을 함께 묶어서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개의 견고한 성이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세속과 악마를 상대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2절).

성녀는 여기서 섬세하고 건강한 의미의 두려움, 즉 “경외심”을 “사랑”과 한 짝으로 묶어 소개했다.

“여러분은 마음속의 즐거움과 사랑의 표를 주님께 받을지라도 다시는 죄지를 염려가 없고 기회를 피할 것이 없다 할 만큼 두려움 없는 안심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완.바 39, 4).

반면, “사랑”은 여정의 첫 시작부터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다른 이들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것은 기도 생활을 시작하는 데 근본적이고도 우선적인 전제 조건이다(4, 5). 더 나아가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이 여정의 본질이다(22-23장).

“관상가들”은 있는 힘을 다해 이 사랑의 수칙을 살아 내고 있다. 사랑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관상가들이라 할 수 없다.” 그들이 지닌 사랑은 “엄청난 불과 같다. 그리고 거기서 큰 광채가 뻗어 나온다.” “만일 그만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줄 알고 스스로 걱정하여 그 위험이 무엇인가를 캐어 봐야 한다”(4절). 사랑이 줄어들면 두려움이 일어난다.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가 품은 사랑은 “커다란 불”이기에 사랑의 밀도는 기도 여정에서 부딪히게 되는 유혹과 불확실함에 대항할 수 있는 보루가 된다. 그런 사랑은 “드러나기 쉽고 드러나는 법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이다”(4절).

2. 본 장의 두 편집본. 이 장을 두고 검열관들은 왜 눈살을 찌푸렸을까?

이 40장은 검열로 인한 삭제와 수정 때문에 가장 난도질을 당한 부분 중의 하나였다. 검열관은 많은 수정과 첨가 그리고 삭제를 했다. 그래서 이를 새롭게 써야 했다. 그것은 성녀가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문제로서 『영혼의 성』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계속해서 성녀에게 영향을 미치던 것이다.

이 싸움의 한편에는 인간이 유혹으로 인해 자신의 나약함을 체험하면서 느끼는 쫓

기는 듯한 불안과 불확실한 느낌이 있으며, **다른 한편에는** 안정, 즉 사랑과 은총이라는 안정된 기반에 의지하려는 열망이 있다. 본 장의 1절에서 성녀가 말하는 “우리가 속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확실합니다”라는 구절은 이를 가리킨다.

매번 성녀가 자신의 설명 가운데 은총 지위에 대한 “확실함” 또는 “안정감”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모험을 감행할 때마다 검열관은 성녀를 책망하기 위해 가차 없이 개입했다.

“우리가 사랑을 지녔다는 것이 확실하면” (2절). 우리가 은총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는 확실함을 갖는 것과 진배없다. 그리고 이 절대적인 확실함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다(2절).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지 아니면 미움을 살지 알 수 없다” (집회 9. 1).

「하느님께 외침」 가운데 “오, 나의 하느님, 제가 당신에게서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요? 오, 내 목숨아,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일이 이처럼 불확실하고 마냥 위험스럽기만 한데, 누가 너를 원하겠느냐?” (외침 1. 3).

우리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보증하는 징표들은 분명 있다. 첫 번째 징표는 착한 행실이 수반되는 ‘진정한 사랑’, 특히 관상가들의 믿음직한 사랑이 그렇다. “하느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좋은 것을 다 사랑하고, 좋은 것을 다 원하고, 좋은 것을 다 돕고, 좋은 것을 다 기리고, 좋은 이들과 벗하여 그들을 도와주고 감싸줍니다. 그들은 오직 진리와 사랑에 값하는 것만을 사랑합니다” (3절).

이렇듯 강렬한 사랑은 그 자체로 진정함과 확실함의 보증을 간직하고 있다.

3. 두려움의 추궁

인간적인 사랑에 비해 이 사랑의 특징 가

운데 하나는 널리 퍼져 나가는 힘이 있고 억누를 수 없을 정도로 피어난다는 데 있다.

“주님의 사랑이야말로 당신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너무나 큰 고생과 고통과 피 흘리심으로 뚜렷이 드러내시었기에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7절).

성녀는 6절에서 두려움이 야기하는 해악에 대해 설명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거슬러 앞장에서 제시한 수칙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했다. ‘겸손’ 과 ‘진리’ 가 그것이다. “겸손과 함께 걸으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얻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무엇보다도 두려움에 맞서 효과적인 것은 사랑이다.

이승의 삶에서 사랑하는 것은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사랑을 얻기 위한 보증이다. 결국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 낼 수 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1요한 4. 18).

4. 기쁨과 전율 사이에서

기도에 대한 성녀의 교육은 다음을 지향했다. 높은 목표를 주시할 것, 인간의 내면을 거짓 두려움으로부터 일으켜 세울 것 등.

사랑의 기쁨은 분명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갖게 되는 두려움을 압도한다. 여기서 우리는 성녀 데레사보다 3세기 후에 리지외 가르멜의 수련소에서 살았던 소화 데레사가 『완덕의 길』의 이 구절을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승에선 결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사랑의 샘에서 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아, 이 얼마나 감미로운 향연인지요. **하느님을 뵈는 것, 저희가 만유 위에 사랑하게 될 분에 의해 심판받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요**” (서간 69; 1888년 5월).*

-가르멜 총서

“성녀 데레사와 함께하는 완덕의 길 묵상” 에서

재속회 소식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김송심 예수성심의 데보라
· 선종일: 2022년 5월 7일 (향년 89세)
· 인천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손순자 예수마리아의 아나다시아
· 선종일: 2022년 5월 17일 (향년 88세)
· 광주 성 엘리야 공동체

* 김태순 예수성심의 마리아
· 선종일: 2022년 5월 23일 (향년 90세)
· 대구 가르멜산의 성모 공동체

종신서약

* 서울 복자 요한 소렷 공동체



· 날짜: 2022년 5월 29일
· 회원: 민미숙 예수성심의 스텔라
성금순 예수의 헬레나

* 서울 성 엘리야 공동체



· 날짜: 2022년 5월 12일
· 회원: 정태숙 하느님 자비의 소화데레사

* 서울 성 시몬스톡 공동체



· 날짜: 2022년 5월 15일
· 회원: 박용득 예수성심의 율리안나,
류호연 아기예수의데레사 스테파니아,
홍주영 하느님뜻의 라파엘라

* 부산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날짜: 2022년 5월 11일
· 회원: 강연우 예수의 요안나
오영미 가르멜산 성모의 레지나

* 대전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 날짜: 2022년 4월 24일
· 회원:
서성순 천주자비의 마리안나
최은희 아기예수의 카타리나
박다원 십자가의 안젤라
문경희 아기예수의 성녀 데레사 율리안나



승고

불안과 기만 속에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조숙의 지음

2022년 6월 7일 출간 | 파람북 펴냄

| 220쪽 | 16,000원 |

조각가 조숙의 예술 에세이

비속한 현실 너머 신성이 깃든 저 아득한 세계,
고요와 순수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고난의 여정

추천의 글

조각가 조숙의(베티)¹⁾ 선생님은 한국 가톨릭교회 내외에 많은 작품을 제작하셨습니다. 조숙의 선생님은 작품활동을 통해 특히 삶의 고통의 문제에 깊이 천착하시며, 내면의 ‘고통의 문제’가 인간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통찰하였습니다. 고통의 신비가 인간 정신의 승고함을 드높이며, 승고한 인간의 영혼이 창조주 하느님을 찬미하게 됨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조 선생님의 작품을 보고 있노라면 예술과 영성은 별도의 가치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승고하다’의 사전적인 의미는 ‘뜻이 높고 고상하다.’입니다. 조 선생님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승고함은 하느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가의 인생 여정과 예술을 함께 녹여낸 이 책을 통해 많은 이가 조 선생님 작품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그 안에 흐르는 깊은 영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천주교 서울대교구장)

1) 서울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회원

수도회 소식

관구장 신부님 귀국

김형신 이냐시오 관구장님께서 미주 사목방문(5/3-6/2)을 마치고 6월 2일 귀국하셨습니다. 사목방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로마 유학

허선형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수사님께서 7월 9일 로마로 유학을 가십니다. 수사님께서 유학을 통해 더 좋은 수도자로 거듭나고 영육 간에 건강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일시: 7월 8일(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5), 8월은 쉽니다.
- 강사: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는 무료 강연입니다.

가르멜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가르멜 수도회 상설고해소

일시: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7/5, 7/19, 8/2, 8/16) 오전 10-12시, 오후 2-6시
장소: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성시간

- 2022년 7월 30일
- 조성훈(부활의 다미아노)신부 지도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 개방)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첫토요 신심미사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 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워싱턴 영성기도 모임 회원들



캘리포니아 관구장님과 담소



뉴욕 공동체 회원들



남가주 공동체 회원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루카 2:19)

“마리아께서는 여왕이시기보다 더 어머니이십니다.”

- 아기예수와 성년의 성녀 테레사 -